

조사보고서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2009. 4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보험연구원

머 리 말

세계경제는 FTA의 확산 및 WTO 체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체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보험을 포함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산업 규제완화 등을 계기로 외국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한국 보험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해가고 있으며 시장구조도 매우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2~3년 전부터 보험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의 시행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글로벌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해외진출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원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보험산업 글로벌화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4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나 동 민

목 차

요 약	1
 I. 서 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선행 연구	1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II.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	19
1. 국내 보험시장의 글로벌화 현황	19
 III. 주요국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과 정책지원 사례	29
1. 글로벌화 현황	29
2. 정책 지원	81
3. 시사점	89
 IV.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95
1.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분야	95
2.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97
3.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 강화	102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보험부문 역할 강화	104
 V. 결 론	107
 참고문헌	108
[부록 1]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112
[부록 2] 보험 무역 통계	113
[부록 3] 초국적 지수 (TNI, Transnationality Index)	115

<표 차례>

<표 II-1> 한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
<표 II-2> 손해보험 해외 출·수재 실적 (1980~2006년)	21
<표 II-3> 보험회사 유형별 국내 보험회사의 점유율 추이	22
<표 II-4> 국내 보험회사 업종별·진출형태별 해외진출 현황	23
<표 II-5> 생명보험회사 해외법인 재무 및 손익현황 (2008년 3월 말)	24
<표 II-6>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 및 손익현황	24
<표 II-7> 세계 상위 5대 보험회사 및 국내 상위 3사 규모 (2007년)	25
<표 II-8> 양해각서 체결국 및 기관	27
<표 III-1> 미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30
<표 III-2> 미국의 주요 보험 수출국 (1990~2006년)	32
<표 III-3> 미국의 주요 보험 수입국 (1990~2006년)	34
<표 III-4>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집중도 (1985~2005)	37
<표 III-5> 미국의 외국 생명보험회사 (2002~2006년)	39
<표 III-6> 국가별 미국 생명보험회사 소유 현황	39
<표 III-7> 미국의 외국인 소유 손해보험회사 (2002~2006년)	40
<표 III-8> 직접투자대조표 (2000~2007년)	42
<표 III-9> 직접투자이익(Direct Investment Income) - 2000~2007년	43
<표 III-10> 미국 보험부문의 직접투자	46
<표 III-11> 미국의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49
<표 III-12>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	53
<표 III-13> 영국의 보험수지 (1986~2006년)	54
<표 III-14> 영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55
<표 III-15> 영국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57
<표 III-16>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	59
<표 III-17> 독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60

<표 III-18> 독일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61
<표 III-19> 독일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64
<표 III-20>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	67
<표 III-21> 프랑스의 보험수지 (1980~2006년)	69
<표 III-22> 프랑스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70
<표 III-23> 프랑스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72
<표 III-24>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4~07년)	74
<표 III-25> 네덜란드의 보험수지 (1995~2006년)	76
<표 III-26> 네덜란드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77
<표 III-27> 외국 보험회사의 네덜란드 시장점유율	77
<표 III-28> 네덜란드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79
<표 III-29>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4~07년)	81
<표 III-30> NAIC 국제보험관계 위원회의 주요 활동	82
<표 III-31> 보험수출입 규모 비교 (2006년)	89
<표 III-32> 보험회사별 글로벌화 비교 (2006년)	93
<표 IV-1> 주요 회원국의 보험 및 관련 서비스 양허현황과 개선내용	99
<표 IV-2>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기초 정보 (예시)	105

<그림 차례>

<그림 II-1> 우리나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
<그림 II-2> 외국 보험회사의 한국 보험시장점유율	22
<그림 III-1> 미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9
<그림 III-2> 미국의 주요 국가 대상 보험수출 추이 (1990~2006년)	33
<그림 III-3> 미국의 주요 국가 대상 보험수입 추이 (1990~2006년)	35
<그림 III-4> 외국 보험회사의 미국 보험시장점유율	38
<그림 III-5> 직접투자대조표 (2000~2007년)	44
<그림 III-6> 직접투자이익 추이 (2000~2007년)	45
<그림 III-7> 미국 보험부문의 직접투자	47
<그림 III-8> 미국 주요 보험회사의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50
<그림 III-9> 영국의 보험수지 (1986~2006년)	53
<그림 III-10> 외국 보험회사의 영국 보험시장점유율	55
<그림 III-11>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57
<그림 III-12> 독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59
<그림 III-13> 외국 보험회사의 독일 보험시장점유율	61
<그림 III-14>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64
<그림 III-15> 프랑스의 보험수지 (1980~2006년)	67
<그림 III-16>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72
<그림 III-17> 네덜란드의 보험수지 (1995~2006년)	74
<그림 III-18>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79
<그림 III-19>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점유율 비교	89
<그림 III-20> 주요국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 비교(1996~2006년)	90
<그림 III-21> 시장집중도와 외국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의 관계(2006년)	91

요 약

I. 서 론

- 2000년대 들어 정부는 국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오고 있음.
 - 금융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필요함.
- 정부의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외국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나 한국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미미한 실정임.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고 있음.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립 후 해외금융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은 활성화되지 않음.
- 따라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연구가 필요함.
- 글로벌화란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국가간 자원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금융산업에서의 글로벌화란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음.
 - － 자국 시장 관점에서 시장의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보험회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 － 자국 보험회사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
- 이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현황 및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향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글로벌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무역통계와 자국시장에서 외국보험회사의 점유율, 자국보험회사의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살펴보고, 해당 국가의 주요 다국적보험회사의 국제화 지수를 조사
 -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에서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한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II.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

- 국내 보험산업은 국내 보험시장 측면에서나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 진출 측면에서 초보적인 글로벌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1980~2006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험수지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손해보험의 해외재보험 부문의 수지 악화에 기인하여 적자폭이 커졌음.

- 국내 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음.
 - － 생명보험시장에서 1997년 0.4%대였던 외국계 보험회사의 비중은 2007년에 20%를 넘어섰음.
 - －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계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오기는 했으나 2007년 현재 3%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음.
- 국제 진출 측면에서는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의 해외진출이 주를 이루었으며 근래에 들어서야 보험영업을 위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 2008년 7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5개국에 8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손해보험회사들은 5개국에 9개의 현지법인과 3개국에 7개의 지점을 설립함.
- 보험료 및 자산 규모면에서 국내사는 글로벌사에 비해 미약한 수준임.
 - －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위인 ING그룹의 자산이 1조 9천억 달러인데 반해, 삼성생명만 1천2백억 달러로 6.1% 수준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금융규제 혁신과 아울러 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10월 22일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
 - － 동 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
 - － 2008년 3월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8년 6월에 제1차 위원회가 개최
 - － 2008년 9월에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
- 정부의 금융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으로 해외 보험회사들의 국내 보험시장 접근성은 매우 용이해졌으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 진출은 저조한 편

Ⅲ. 주요국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추진 사례

1. 글로벌화 현황

가. 미국

- 미국의 보험 수지는 1980~2006년 동안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1997년 이후 보험수입이 급증하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음.
- 미국 생명보험 시장은 개인생명보험의 경우 상위 4개사의 집중도는 29.6%로 높지 않았으나, 단체개인연금은 55.2%로 높았음.
 - 2007년 손해보험 시장의 상위 4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28.7%, 상위

8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43.5%로 나타났다.

- 미국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생명보험 시장에서 1997년 이래 크게 증가(1997년 13% → 2006년 30%)한 반면,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음(1997년 8.8% → 2006년 11%).
- UNCTAD(2007)에서 선정한 세계 30위 이내 초국적기업(TNC)에 포함된 미국의 6개 보험회사의 초국적지수(TNI: Transnationality Index, [부록 3] 참조)를 측정한 결과, 메트라이프를 제외한 5개 보험회사의 TNI가 2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

나. 영국

- 영국의 보험 수지는 1986~2006년 동안 흑자를 유지했으나 보험 수출의 영향으로 전 기간에 걸쳐 변동이 컸음.
- 영국 보험시장의 집중도는 1996~2006년 동안 크게 증가
 - 1996~2006년 동안 자국내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30.7%에서 43.6%로,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30.8%에서 51.8%로 증가함.
- 1997~2006년 동안 외국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37%에서 45%로,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20%에서 57%로 증가함.
- 영국에서 주요 초국적 보험회사의 2007년 TNI를 조사한 결과, 로알앤드 선얼라이언스(55.3%)와 아비바(51.7%)의 TNI가 50%를 넘었으며 그 뒤를 37.1%인 푸르덴셜이 따랐음.

다. 독일

- ☐ 독일의 보험 수출입 규모는 1990년대 중반부터 각각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2005년의 경우 수출 급감으로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음.
- ☐ 독일 보험시장의 집중도는 1996~2006년간 크게 증가했는데,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30.5%에서 46.5%로,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에는 23%에서 44.7%로 상승함.
- ☐ 1997~2006년 동안 독일 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생명보험의 경우 8.6%에서 13.7%로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12.7%에서 8.4%로 감소하였음.
- ☐ 독일 주요 초국적보험회사의 2007년 TNI를 조사한 결과 하노버재보험회사가 83.2%로 가장 높았으며, 알리안츠보험그룹(손보부문 68.1%, 생보부문 61.5%)과 뮌헨재보험회사(58.1%)가 그 뒤를 따랐음.

라. 프랑스

- ☐ 프랑스의 보험수지는 2000년 이전까지 거의 균형 상태를 유지했으나, 2000년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뒤 하락해 2002년부터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 1996~2006년 동안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 시장의 경우 48.4%에서 56.4%로,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40.4%에서 54.8%로 상승함.
- ☐ 주요 초국적보험회사의 2007년 TNI를 조사해본 결과, 악사가 77.5%의 높은 국제화 정도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룹파마가 16.1%, CNP보험회사가 9.7%로 높지 않았음.

마. 네덜란드

- ☐ 네덜란드의 보험수지는 1995~2006년 동안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함.
- ☐ 1996~2006년 동안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생명보험시장의 경우 59.0%에서 72.2%로,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37.0%에서 60.1%로 증가함.
- ☐ 생명보험시장과 손해보험시장에서 1990년대까지 30%대를 유지하던 외국보험회사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2006년 각각 27.2% 및 20.2%로 하락함.
- ☐ 네덜란드의 주요 초국적보험회사로서 2007년 TNI를 조사한 결과 ING는 70.0%, Aegon은 81.1%로 두 보험회사 모두 7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함.

2. 정책 지원

가. 미국

- ☐ 미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시장 글로벌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글로벌 표준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도국에의 기술지원 등 미국의 유익한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고, NAIC-EU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 2007년에는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EU 간 합의에 의한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를 발족하고 보험 관

런 이슈도 검토함.

- 동 위원회는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미국과 EU지역에 보험 회사들간 진정한 공정경쟁의 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요청함.
- 미국이 EU의 재보험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규정의 개정과 유럽 위원회의 SolvencyII 프레임워크 지침 중에서 제3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 등이 현안에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은 일본 및 EU 등과 보험 대화(Insurance Dialogue)를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처리해왔음.
- 1993~1997년에 진행된 미국과 일본 간 프레임워크 회담(US-Japan Framework Talks)에서도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열렸으며, 그 결과 일본이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 및 자회사를 통한 제3 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등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회담은 1993년 7월에 발족되었으며 현재까지 양국간의 경제적 이슈를 처리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해 오고 있음.

나. EU

- 유럽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International Affairs) 분과는 유럽 이외의 주요 해외시장에서 유럽의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부문의 자유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함.
- CEA는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저당(collateral) 규정의 제거 및 미국 연방정부의 보험규제정책 이슈 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

하고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음.

- CEA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의 개발과 관련된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CEA는 중국과의 협상을 글로벌화와 관련된 최대 난제로 판단하고, 기본전략으로 WTO 또는 양자간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의 무역자유화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및 EU-중국 간 규제회담을 통해 규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3. 시사점

가. 글로벌화 현황

- 우리나라는 보험시장의 규모에 비해 수출입 측면에서의 글로벌화가 다른 비교대상국들에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점유율을 통해 글로벌화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낮은 글로벌화 수준을 보였음.
- 외국보험회사의 해당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시장집중을 보기 위해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다른 주요국에 비해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각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해외수입비중과 진출국 수를 조사 및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보험회사들과 현격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조사대상 21개 보험회사 중 9개 보험회사에서 해외수입비중이 50%

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0개 보험회사가 20개 이상의 국가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정책 지원

-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미국과 EU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적 접근에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
 - 첫 번째로 미국과 EU 모두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여 해당 보험산업이 해외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 파악과 해소, 자유무역의 촉진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 미국에서는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내 국제보험관계 위원회에서, 유럽에서는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 분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양측 모두 자국의 주도 하에 외국과의 규제차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미국과 EU는 모두 주요해외시장의 감독당국과 정기적인 회담을 열고 있었으며, 관련 국제기구에서 표준수립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IV.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안

-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완화 관련한 이슈는 대부분 해소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정책당국간 공조를 통하여 진출 현지국의 규제시스템 개선에 정책지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진출 현지국의 진입, 소유 및 지배구조, 퇴출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며, 상품 및 요율, 모집제도,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투자 대상국과의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모두 필요
- 일반 국제기구는 물론 보험 관련 국제기구도 활용하여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시 진출 현지국의 보험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WTO와 같은 일반 국제기구의 활용은 과거와 견주어 보았을 때 점차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나, 유망성장지역 진출 시에는 DDA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간 마찰을 줄이면서 영향력을 높이는데 유용함.
 - IAIS나 OECD 같은 보험 관련 국제기구에서 보험규범 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개선시킬 수 있음.
 - － 아울러 이들 국제기구가 개발한 감독교육자용 교재를 감독기구간 쌍무적 협력 차원에서 진출 현지국의 보험감독관에 대한 교육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쌍무적 협력도 강화하여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쌍무적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접근되어야 함.
 - 또한 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산업의 관점을 관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험감독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보험시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보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 이를 통해 세계 각국의 보험규제 관련 정보는 물론 보험시장의 기초 정보, 보험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경제는 제도와 기술을 비롯한 폭넓은 범위에서 변화의 바람이 급격하게 불고 있다. FTA¹⁾의 확산 및 WTO 체제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체, 국가간 자본 및 기술 이동의 원활화 등에 의해 세계경제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매우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 증권 및 은행을 포함한 금융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보험산업에서 글로벌화는 주로 선진보험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진국 보험시장은 진입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금융겸업화로 인해 점차 경쟁이 심화되었다. 결국 선진보험그룹들은 시장의 경쟁압력을 벗어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이 초기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해왔다.

국내 보험산업의 변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외국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한 후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한국 보험회사들은 해외진출에 소극적이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해외 시장 공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자산규모를 글로벌 보험회사와 비교해 보면 글로벌 보험회사의 규모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 보험회사들의 글로벌화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 금융시장 및 국내시장의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2~3년

1) 현재 현재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는 칠레, 싱가포르,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ASEAN, 미국이 있으며 추진중인 국가는 캐나다, 인도, EU, 멕시코, 일본 및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가 있다.

전부터 보험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2007년 10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선진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07년 중점 추진과제로 외국자회사²⁾ 관련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적극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정과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화 정책 중의 하나이다. 금융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금융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아울러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글로벌화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렇게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가. 국내 연구

기존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은 해외사례 및 해외 시장조사, 보험회사 관점의 해외진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석호(2005)는 중국의 보험시장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보험회사의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합작투자방식으로 제한되어

2) 해외 자회사 주식 소유는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있으므로 이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진입규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단독투자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순재(2005)는 동북아 보험시장 및 국내보험회사의 진출 동기와 여건의 적합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장의 선정 방법 및 진출 방식 등에 대한 전략을 고찰하였다. 동 논문은 해외진출방식을 무(無)자본투자 방식과 유(有)자본투자 방식으로 구분하였다.³⁾

양성문 외(2008)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적합한 지역의 국가와 글로벌 성공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인도, 베트남의 보험제도를 설명하고, AIG, Allianz, AXA, Met, ING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나. 해외 연구

Li et al.(2003)은 보험서비스의 산업 내 교역(IIT: Intra-industry Trade)의 결정요인에 대해 최초의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그들은 미국에서 보험서비스의 IIT의 규모를 분석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험서비스의 해외직접투자는 보험서비스 교역량 증가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보험서비스의 교역과 해외직접투자는 상호보완적이며, 따라서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보험서비스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적 교역 모형을 확인하였다.⁴⁾ 더욱이 이 연구는 미국과 교역 상대국간의 교역강도가 보험서비스의 상품차별화로 이어지며,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Li and Moshrian(2004)의 연구는 미국 보험서비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논하였다. 그들은 투자유치국의 확고한 경제기반이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며, 국제 환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리스크를 증가시키고 투자욕을 삭감시킨다고 주장하였다. 국민소득(NI), 투자국의 보험

3) 무(無)자본투자 방식에는 현지접촉선과의 네트워크 형성, 다국적 보험회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직원상주를 통한 네트워크, 연락사무소 등이 있으며, 유(有)자본투자 방식에는 합작투자(소수지분과 다수지분), 단독지배(인수방식), 자회사설립(현지법인) 등이 있다.

4) 기존이론은 보험서비스의 교역과 해외직접투자 상호간을 대체재로 인식해왔다.

시장의 규모, 투자유치국의 금융발전정도가 보험서비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시키나, 투자유치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자본비용은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Chen and Hamwi(2007)는 미국이 수 년 동안 보험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로 미국시장의 거대함, 낮은 재보험 보유, 해외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수적 태도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규명하였다.

Schoenmaker et al.(2007)은 EU 내의 대형 25개 보험그룹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이 국제화를 매우 지향(orientation)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미국,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 등의 보험회사에 비해 더 강한 국제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Focarelli and Pozzolo(2007)는 은행 부문과 보험 부문간 국경간 M&A의 결정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은행과 보험간 국제화 정도의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간 국제화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통합, 소위 고객추종(follow the client) 가설은 은행과 보험회사 모두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분산은 보험회사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이고 있으며, 비공식 진입장벽(implicit barriers)은 보험회사의 행태보다는 은행의 행태를 설명할 때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글로벌화란 용어는 1960년대 사회과학 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사용되었다. 글로벌화란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경제학적으로 될 때에는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국가간 자원이동이 자유로워지며 상호의존도가 심화되어서 세계가 통합(integration)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에서 글로벌화란 세계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보험산업

에 적용시켜 보면 첫 번째는 자국 시장의 관점에서 해외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국 보험회사의 관점에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시장 접근에 대한 용이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시장적 요인, 해외진출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및 기타 선진국의 사례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국가의 글로벌화 정도를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국내 또는 EU 회원국 내 보험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EU에서 행해진 정책적 지원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용한다. 글로벌화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보험수출입, 해외직접투자, 해외 보험회사의 국내시장점유율, 국내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등의 통계자료를 살펴본다. 각 국가의 보험수출입 통계⁵⁾는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의 자료를 이용했으며, 경상가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동 자료를 각국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해 2000년 실질가격으로 변환했다.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관련 통계는 미국⁶⁾을 제외하고는 보험 부문의 FDI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미국에 대해서만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시장점유율과 함께, 국내 보험회사가 경쟁압력으로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집중도를 살펴보았다.

주요 국내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는 Schoenmaker et al.(2007)에 의거한 TNI로 측정한다.⁷⁾ 높은 TNI는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거나 또는 자국 시장의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가 낮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TNI는 자국 시장의 규모와 진출 대상국의 수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

5) 보험 수출입 통계는 NET으로 작성돼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수출액은 수입 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의 비용을 제한 것이며, 수입액은 지불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제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6)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직·간접적으로 해외 법인기업의 의결권을 10% 이상 또는 비법인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7) 이외 기업의 국제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Sullivan(1994)이 개발한 DOI(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등이 있다. Sullivan(1994)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미국의 74개 다국적기업의 9개 특징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동 지수를 개발했다.

적될 수 있다.⁸⁾ 정책적 지원 내용은 주요관련당국이 자국보험회사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부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주요 보험 선진국의 글로벌화 추진사례와 각국의 정책 지원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제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8) UNCTAD(2007)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해외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결과에서는 독일의 Allianz, 프랑스의 AXA, 네덜란드의 ING, 스위스의 Zurich Financial Services, 이탈리아의 Ass. Generali가 Top 5로 나타난 반면, TNI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위의 Swiss Re를 포함해 시장규모가 작은 국가의 보험회사들이 상위 5개 보험회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국 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AIG, Allianz, ING가 상위 3개 보험회사로 나타나 브랜드 네임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II. 국내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

1. 국내 보험시장의 글로벌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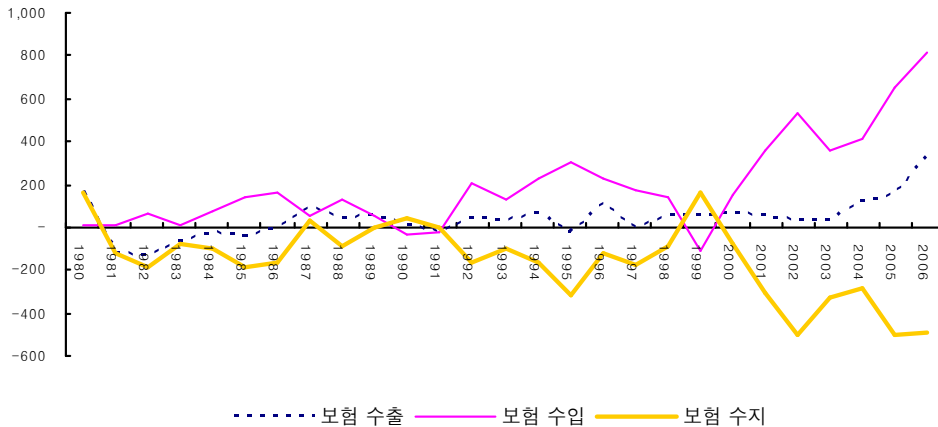
가. 보험 수지

1980~2006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험수지⁹⁾는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여 왔으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보험수지 적자 수준은 2001년에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선 뒤 2006년에는 4억 8,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0년 이후의 보험수지 적자는 주로 동 기간 보험 수입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했다. 보험수입은 2000년 1억 4,600만 달러에서 2002년 5억 3,6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한 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6억 5,400만 달러와 8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보험수출은 수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나 2003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다. 보험수출은 2003년 3,100만 달러에서 2006년 3억 2,800만 달러로 증가했다.

9) UNCTAD는 IMF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국제무역 통계를 작성하며 서비스산업에는 관광·정보통신·보험등 11개 부문이 포함된다. 보험수지는 보험수출과 보험수입으로 구성되며 보험수출은 거주 보험회사(resident insurer)가 보험서비스를 비거주자(non-resident) 또는 비거주 보험회사(non-resident insurer)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수입은 비거주 보험회사(non-resident insurer) 보험서비스를 거주자(resident) 또는 거주 보험회사(resident insurer)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의 정의를 포함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2]를 참조. 동 개념은 이하 주요국 설명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림 II-1> 우리나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1> 한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9,206	9,205	16,554	26,734	30,534	30,136	46,503
	수입	11,796	8,101	17,611	30,223	33,381	36,925	63,324
	수지	-2,590	1,104	-1,056	-3,489	-2,848	-6,789	-16,821
보험	수출	175	-47	7	-23	68	31	328
	(비중)	1.9	-0.5	0.0	-0.1	0.2	0.1	0.7
	수입	10	136	-35	298	146	357	815
	(비중)	0.1	1.7	-0.2	1.0	0.4	1.0	1.3
	수지	165	-183	42	-322	-78	-326	-487
	(비중)	-6.4	-16.6	-4.0	9.2	2.7	4.8	2.9
금융 서비스	수출	0	6	1	123	705	639	2,292
	(비중)	0.0	0.1	0.0	0.5	2.3	2.1	4.9
	수입	45	112	19	152	191	92	552
	(비중)	0.4	1.4	0.1	0.5	0.6	0.3	0.9
	수지	-45	-107	-18	-29	514	546	1,740
	(비중)	1.7	-9.7	1.7	0.8	-18.0	-8.0	-10.3

주 :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손해보험 부문의 해외 출·수재 실적을 보면, 2006년 기준 출재보험료가 26억 9천만 달러, 수재보험료가 4억 9천만 달러로 출재보험료의 규모가 수재보험료의 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재보험료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왔으나, 출재보험료와 출재보험료 부문의 마이너스 수지 규모 또한 큰 폭으로 상승해 해외 출·수재 순수지차액의 마이너스 규모는 2003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2006년 11억 9천만 달러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손해보험 해외 출·수재 실적 (1980~2006년)

(2000년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수재보험료	417	97	70	48	122	228	488
수지차	37	-72	-35	0	27	59	114
출재보험료	399	395	377	658	761	1,223	2,691
수지차	-139	-172	36	-196	-272	-277	-1,307
순수지차액	176	-244	1	-197	-245	-218	-1,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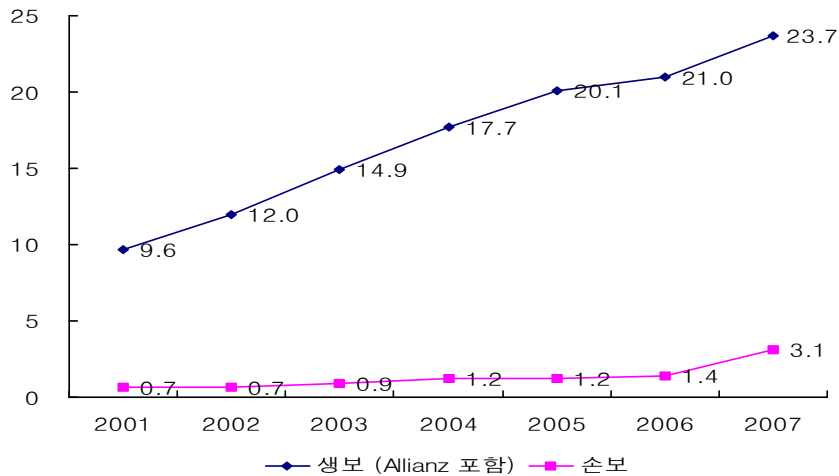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나. 국내 보험시장 내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6%에서 크게 증가하여 2005년에 이미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해오기는 했으나, 2007년 현재 3.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림 II-2> 외국 보험회사의 한국 보험시장점유율

(단위 : %)



주 : 손해보험부문의 2004년(3분기말 기준)을 제외하고 모두 회계연도 말 기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로 분류됨.
자료 :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각 월호

<표 II-3> 보험회사 유형별 국내 보험회사의 점유율 추이

(단위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생명 보험	3개사	76.4	74.5	71.0	67.7	64.3	60.7	54.3
	외국사	9.6	12.0	14.9	17.7	20.1	21.0	23.7
	국내 중소형사	14.0	13.6	14.2	14.6	15.6	18.3	22.0
손해 보험	상위 4개사	68.7	70.2	70.6	71.1	71.3	71.0	70.1
	외국사	0.7	0.7	0.9	1.2	1.2	1.4	3.1

주 : 1) 손해보험부문의 2004년(3분기말 기준)을 제외하고 모두 회계연도 말 기준.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보험회사가 외국 보험회사로 분류됨.
2) 생명보험에서 3개사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임
자료 : 보험회사 사업실적표 각 월호

2.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현황

가. 초보적 상태의 글로벌화

국내 보험회사 해외 진출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은 5개국에 총 8개가 있으며, 해외지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은 2008년 7월까지 5개국에 진출해 총 9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지점의 형태로는 3개국에 진출해 7개의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출국의 54.2%가 아시아 지역, 37.5%가 미국, 나머지 8.3%가 영국으로 아직까지는 진출 지역이 제한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4> 국내 보험회사 업종별 · 진출형태별 해외진출 현황(08년 7월)

(단위 : 개, %)

진출형태		북미	유럽	아시아							총계
		미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홍콩	일본	
생 보	현지법인	3	1	1	-	-	1	1	1	-	8
	지점	-	-	-	-	-	-	-	-	-	-
	계	3	1	1	-	-	1	1	1	-	8
손 보	현지법인	1	1	1	-	3	2	-	1	-	9
	지점	5	-	-	1	-	-	-	-	1	7
	계	6	1	1	1	3	2	-	1	1	16
총합계		9	2	2	1	3	3	1	2	1	24
비중(%)		37.5	8.3	54.2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I-5> 생명보험회사 해외법인 재무 및 손익현황 (2008년 3월 말)

(단위 : 백만 달러)

자본금	자산	부채	당기손익
124.5	167.6	37.4	△0.37

자료 : 금융감독원

<표 II-6> 손해보험회사 해외점포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5년 상반기(A)	2006년 상반기(B)	증감(B-A)
자 산	288.7	306.5	17.8
당기손익	9.2	6.7	△2.5

자료 : 재정경제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2007.4.25

나. 취약한 국제경쟁력

글로벌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를 규모 및 수익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료 및 자산 규모는 글로벌 보험회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Swiss Re에 따르면 글로벌 보험회사는 여러 나라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이상인 보험회사(보험그룹)로 정의된다.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글로벌 보험회사인 ING, AXA, Assicurazioni Generali 등이 2007년 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삼성생명은 309억 달러,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126억 달러와 137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보험회사들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차이는 자산규모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ING, AXA의 2007년 총자산이 각각 약 2조 달러와 1조 달러에 달하고 Aviva, Assicurazioni Generali의 자산이 2007년 약 6,000억 달러였던 반면, 삼성생명의 2007년 자산은 1,200억 달러, 대한생명과 교보생명의 2007년 자산은 각각 약 500억 달러였다. 손해보험 부문에서도 Allianz, Berkshire Hathaway, AIG 등의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2007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삼성화재는 105억 달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약 53억 달

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경우에도 Allianz, AIG의 자산이 2007년 1조 달러 이상, Berkshire Hathaway의 자산이 약 2,700억 달러에 달한 반면, 삼성화재의 2007년 자산은 약 220억 달러, 현대해상과 동부화재의 자산은 각각 약 90억 달러에 그쳤다. 국경간 M&A 등을 통해 대형화된 글로벌 보험회사(그룹)들은 세계 보험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생명보험그룹들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998~2004년 연평균 18%의 고 성장을 실현하며 세계보험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 2004년 기준 12개 글로벌 생명보험그룹의 세계 생명보험시장 점유율은 1998년 19.8%에서 2004년 28.2%로 확대됐다.

<표 II-7> 세계 상위 5대 보험회사 및 국내 상위 3사 규모 (2007년)

(단위 : 백만 달러, 명)

구 분		회사명	수익	자산	임직원
생명 보험회사	글로벌 보험회사	ING Group	201,516	1,918,970	120,282
		AXA	162,762	1,056,963	103,534
		Assicurazioni Generali	113,813	559,302	67,306
		Aviva	81,317	636,431	57,011
		Prudential (UK)	66,358	437,420	49,616
	국내 보험회사	삼성생명	30,905	117,513	6,337
		대한생명	12,565	53,266	4,872
		교보생명	13,362	49,684	4,351
손해 보험회사	글로벌 보험회사	Allianz	140,618	1,551,465	181,207
		Berkshire Hathaway	118,245	273,160	232,781
		AIG	110,064	1,060,505	116,000
		Munich Re Group	64,774	313,251	38,634
		Zurich Financial Service	55,163	389,344	58,220
	국내 보험회사	삼성화재	10,523	22,321	5,440
		현대해상화재	5,325	9,139	2,870
		동부화재해상	5,323	8,724	3,739

자료 : Fortune Global 500,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글로벌화 정책 추진 현황

가. 금융감독 선진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7년 10월 22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금융감독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7년에는 ‘외국자회사 관련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지주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돼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가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현재는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과 금융회사 대형화·겸업화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증권·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시 제도적 장애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들 간의 공동출자를 통한 해외진출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지난 2008년 12월 9일에는 보험회사들의 해외 자회사 주식소유한도를 자회사 투자한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나. 외국 금융감독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금융위원회는 미국, 영국 등 주요 금융당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국제금융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감독기구와 상호 감독정보 공유, 상호간 기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제적 협력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지난 2008년 6월에는 금융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간 금융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중국에 ‘현지 금융기관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조직해 진출한 민간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국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표 II-8> 양해각서 체결국 및 기관

국명	상대기관명	체결시기
영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금융감독청)	1999.11.10
일본	Financial Services Agency (금융감독청)	2000.12.22
독일	The Bundesaufsichtsamt für das Kreditwesen ¹⁰⁾ (금융감독청)	2001.6.5
프랑스	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 ¹¹⁾ (증권거래위원회)	2002.4.30
	Commission Bancaire (은행위원회)	2003.10.18
중국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증권감독위원회)	2001.6.19
	China Insurances Regulatory Commission (보험감독위원회)	2002.9.3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은행감독위원회)	2004.2.11
베트남	State Securities Commission (국가증권위원회)	2002.1.30
	State Bank of Vietnam (중앙은행)	2006.6.8
UAE (아랍 에미리트)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금융감독청)	2006.4.11
	Emirates Securities and Commodities Authority (증권·상품 감독청)	2007.5.22
캄보디아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캄보디아 재정부)	2006.6.19
미국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SEC) (증권거래위원회)	2006.6월
헝가리	Hungari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헝가리 금융감독청)	2006.11.6
카타르	Qatar Financial Center Regulatory Authority (카타르 금융센터감독청)	2007.5.10
싱가포르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2007.5.10

10) 은행감독청을 통합금융감독청(BaFin)으로 통합하였다.(2002.5)

11) 2003년 8월증권거래위원회를 금융시장청(AMF)으로 통합하였다.

다. 금융중심지 조성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진출·입 및 국제간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에 금융중심지법이 제정·시행됐으며, 금융중심지 조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08년 6월에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 9월에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가 설립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수집(Information pooling)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동 센터는 금융관련 인허가 등 애로사항에 대해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 향후 금융중심지 내 입주한 금융회사 및 외국인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Ⅲ. 주요국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현황과 정책지원 사례

1. 글로벌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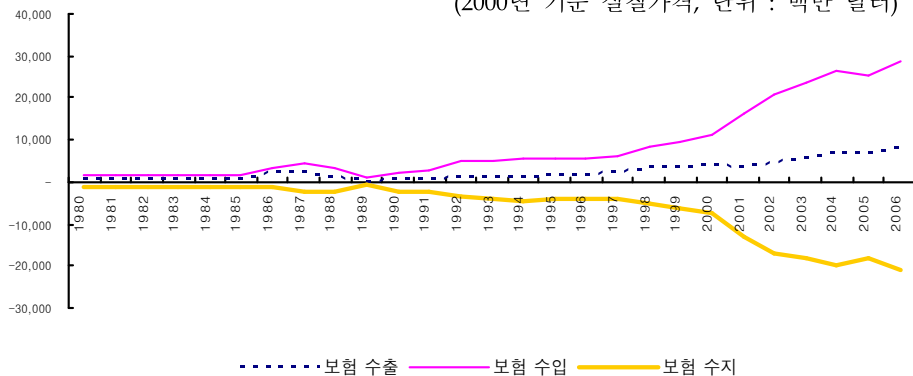
가. 미국

1) 보험 수지

미국의 보험 수지는 1980~2006년 동안 적자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1997년 및 2000년 이후 적자폭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 USD 기준으로 1980년과 1990년에 각각 11억 달러와 20억 달러 수준이었던 보험 수지 적자는 2000년에 77억 달러, 2006년에는 약 20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보험 수지 적자폭의 확대는 보험수입이 급증한 데에서 기인했다. 1980년과 1990년에 각각 16억 달러와 23억 달러였던 보험수입은 이후 2000년 110억, 2006년에는 29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보험 수출도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보험수입의 증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보험수출 규모는 보험 수입의 30%에 해당하는 80억 달러였다.

<그림 III-1> 미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I-1> 미국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1980 ²⁾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87,987	104,846	179,507	235,981	295,965	282,931	359,319
	수입	75,811	103,322	143,461	153,529	223,739	235,259	294,094
	수지	12,176	1,525	36,046	82,451	72,226	47,672	65,225
보험	수출	444	301	282	1,357	3,631	5,614	7,958
	(비중)	0.5	0.3	0.2	0.6	1.2	2.0	2.2
	수입	1,591	1,650	2,341	5,566	11,284	23,715	28,809
	(비중)	2.1	1.6	1.6	3.6	5.0	10.1	9.8
	수지	-1,147	-1,348	-2,059	-4,209	-7,653	-18,101	-20,852
	(비중)	-9.4	-88.4	-5.7	-5.1	-10.6	-38.0	-32.0
금융 서비스	수출	3,383	3,930	5,417	7,631	16,026	18,513	31,839
	(비중)	3.5	3.7	3.0	3.2	5.4	6.5	8.9
	수입	271	1,865	3,027	2,684	4,840	3,755	7,289
	(비중)	0.4	1.8	2.1	1.7	2.2	1.6	2.5
	수지	3,112	2,066	2,390	4,948	11,186	14,758	24,550
	(비중)	14.9	135.5	6.6	6.0	15.5	31.0	37.6

주 : 1)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 금융서비스의 자료는 1981년의 것임.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 보험수출국은 캐나다(전체 보험 수출액의 21%), 영국(13%), 일본(11%), 버뮤다(9%) 등이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수출로 벌어들인 보험료 중에서 재보험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 2003~2006년간 대 캐나다 보험 수출액은 원수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동 기간 원수보험료는 4억 달러(2000년 기준 실질가격)에서 22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2003~2006년간 대 영국 보험 수출액은 재보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며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2003년에는 재보험료와 원수보험료의 수입이 모두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대 일본 수출액이 2003~2006년 동안 재보험료 수입의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주요 보험 수입국은 버뮤다(전체 보험 수입액의 38%), 스위스(17%), 영국(9%), 독일(9%) 등이었다. 대 버뮤다 보험 수입액은 1995~2003년간 14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재보험료의 지불은 1995~2003년 동안 38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원수보험료의 지불도 2000~2003년 동안 3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로부터의 보험수입액은 재보험료의 지불에 기인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되어 왔다. 스위스에 지불된 재보험료는 2000년 11억 달러에서 2003년 57억 달러, 2006년에는 9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스위스로부터의 보험 수입액은 2000년 4억 달러에서 2006년 48억 달러로 급증했다. 대 영국 보험 수입액은 1995~2003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15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27억 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원수보험료 지불이 2000~2003년에 12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뒤, 2006년에 다시 12억 달러로 감소한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었다.

<표 III-2> 미국의 주요 보험 수출국 (199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1990	1995	2000	2003	2006
1	국가		캐나다	캐나다	일본	영국	캐나다
	수출액		406	339	732	1,574	1,646
	(비중) ¹⁾		(143.9)	(25.0)	(20.2)	(28.0)	(20.7)
	보험료	재보험	711	802	- ²⁾	3,846	1,302
	수익	원수	909	400	-	416	2,213
2	국가		아르헨티나	영국	영국	캐나다	영국
	수출액		58	318	611	729	1,050
	(비중)		(20.4)	(23.4)	(16.8)	(13.0)	(13.2)
	보험료	재보험	2	1,650	1,310	1,546	2,445
	수익	원수	72	39	130	415	453
3	국가		일본	일본	캐나다	독일	일본
	수출액		51	94	412	617	857
	(비중)		(18.3)	(6.9)	(11.4)	(11.0)	(10.8)
	보험료	재보험	-	491	824	1,694	2,670
	수익	원수	-	10	128	103	48
4	국가		홍콩	독일	버뮤다	버뮤다	버뮤다
	수출액		18	61	298	415	730
	(비중)		(6.5)	(4.5)	(8.2)	(7.4)	(9.2)
	보험료	재보험	10	257	-	1,282	1,618
	수익	원수	42	29	6	11	166
5	국가		버뮤다	프랑스	프랑스	일본	독일
	수출액		17	48	157	301	462
	(비중)		(6.1)	(3.5)	(4.3)	(5.4)	(5.8)
	보험료	재보험	130	218	378	811	1,219
	수익	원수	11	16	6	59	106
6	국가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독일	멕시코	스위스
	수출액		16	39	140	178	315
	(비중)		(5.7)	(2.9)	(3.9)	(3.2)	(4.0)
	보험료	재보험	32	-	331	480	289
	수익	원수	5	-	9	47	15
7	국가		스위스	버뮤다	아르헨티나	호주	프랑스
	수출액		11	39	112	170	218
	(비중)		(3.9)	(2.9)	(3.1)	(3.0)	(2.7)
	보험료	재보험	91	214	240	256	628
	수익	원수	16	1	24	12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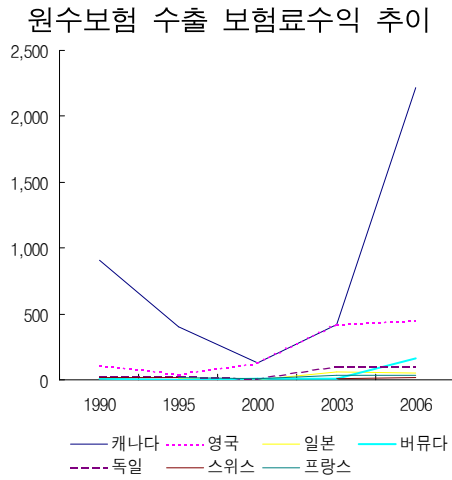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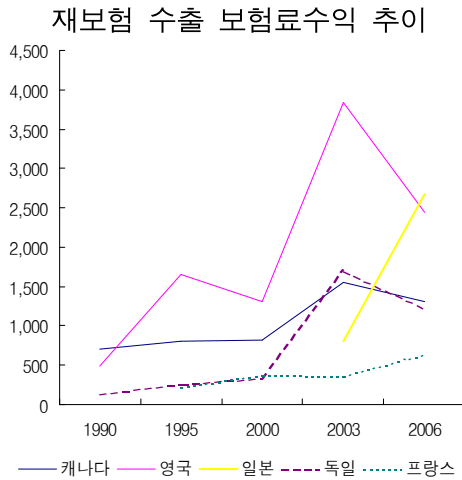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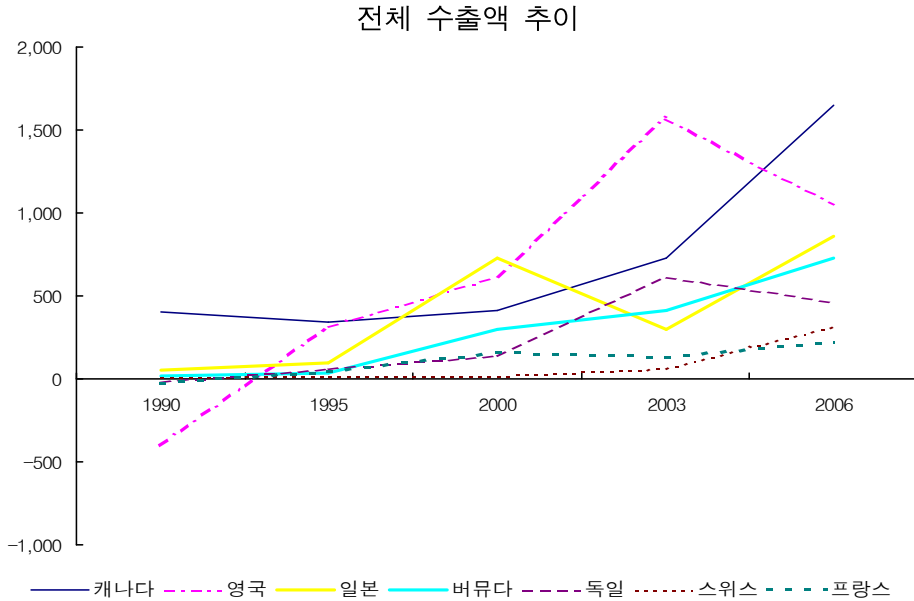
주 : 1) 비중은 전체 보험 (순)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 개별 보험회사의 자료 공개를 막기 위해 발표되지 않았음.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III-2> 미국의 주요 국가 대상 보험수출 추이 (199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III-3> 미국의 주요 보험 수입국 (199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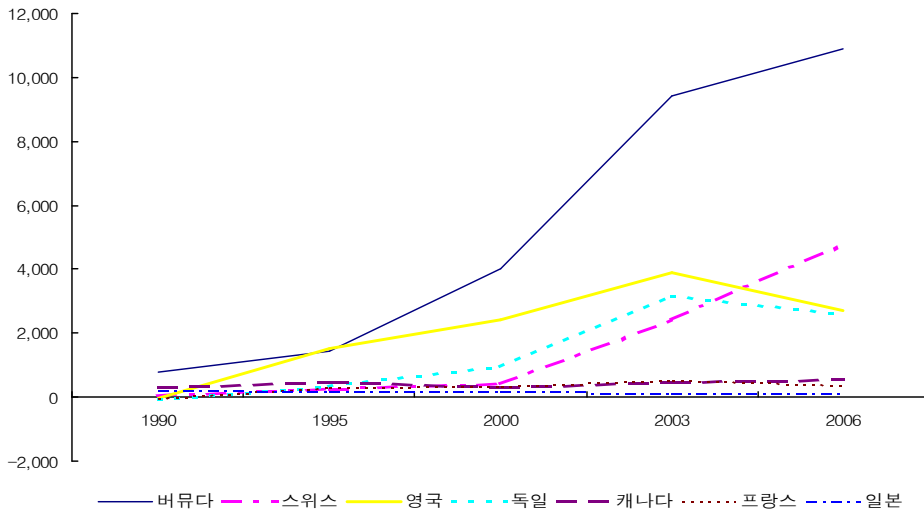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3	2006
1	국가		버뮤다	영국	버뮤다	버뮤다	버뮤다
	수입액		788	1,532	4,012	9,430	10,882
	(비중) ¹⁾		(33.7)	(27.5)	(35.6)	(39.8)	(37.8)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3,113 343	3,117 850	9,633 346	20,136 1,118	20,695 810
2	국가		캐나다	버뮤다	영국	영국	스위스
	수입액		277	1,443	2,424	3,885	4,799
	(비중)		(11.8)	(25.9)	(21.5)	(16.4)	(16.7)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983 38	3,812 509	3,369 1,160	4,681 2,000	9,767 38
3	국가		일본	캐나다	독일	독일	영국
	수입액		196	442	938	3,176	2,689
	(비중)		(8.4)	(7.9)	(8.3)	(13.4)	(9.3)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561 1	- -	- -	7,230 25	2,967 1,178
4	국가		스웨덴	독일	스위스	스위스	독일
	수입액		70	353	432	2,419	2,585
	(비중)		(3.0)	(6.3)	(3.8)	(10.2)	(9.0)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180 1	- -	1,077 22	5,729 54	5,145 34
5	국가		스위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캐나다
	수입액		37	285	345	557	553
	(비중)		(1.6)	(5.1)	(3.1)	(2.3)	(1.9)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614 0	524 177	- -	944 163	519 243
6	국가		호주	스위스	캐나다	캐나다	프랑스
	수입액		28	232	308	468	355
	(비중)		(1.2)	(4.2)	(2.7)	(2.0)	(1.2)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45 5	685 58	594 83	676 201	560 75
7	국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일본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수입액		22	165	250	156	143
	(비중)		(0.9)	(3.0)	(2.2)	(0.7)	(0.5)
	지불 보험료	재보험 원수	89 7	- -	- 1	193 2	291 1

주 : 1) 비중은 전체 보험 (순)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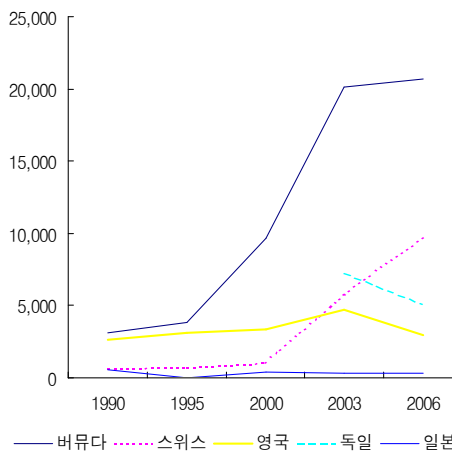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III-3> 미국의 주요 국가 대상 보험수입 추이 (199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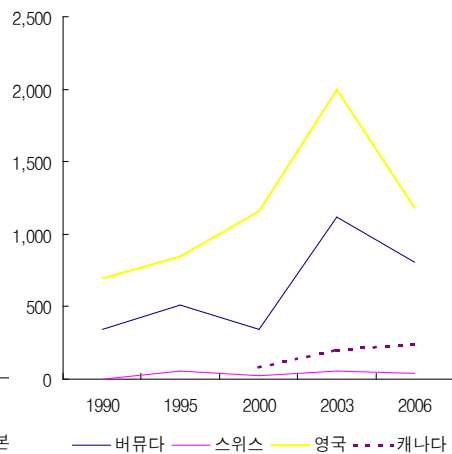
전체 수입액 추이



재보험 수입 지불보험료 추이



원수보험 수입 지불보험료 추이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자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미 법무부(DOJ: Department of Justice) 지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는 지침에서 HHI가 1000~1800 사이이고 합병이 지수를 100 포인트 이상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심사를 시행하고, 1,000 이하인 경우 합병 심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HHI가 1,800보다 크고 합병으로 인해 100 포인트 이상 지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 관련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의 일반 생명보험 부문의 2005년 HHI는 410으로 집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연금시장의 집중도는 일반 생명보험 시장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2005년의 HHI가 522로 역시 집중도가 낮았다. 2005년 단체(group)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생명보험과 연금 부문이 각각 777과 971로 일반 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 시장과 단체 시장의 집중도 차이는 각 시장의 소비자 특성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지난 20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표 III-4> 미국 생명보험 시장의 집중도 (198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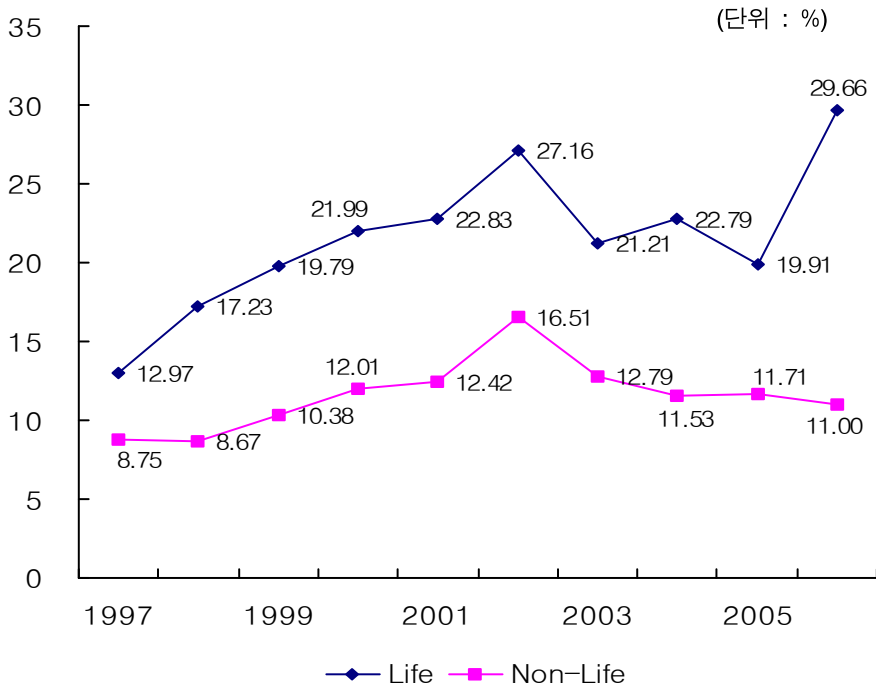
상위 4개 보험회사 ¹⁾ 기준				
	Life (Ordinary)	Annuity (Ord.)	Life (Group)	Annuity (Group)
1985	0.224	0.278	0.371	0.496
1990	0.338	0.472	0.499	0.586
1995	0.212	0.252	0.425	0.403
2000	0.227	0.372	0.360	0.516
2005	0.296	0.350	0.455	0.552
상위 8개 보험회사 기준				
1985	0.329	0.388	0.517	0.634
1990	0.494	0.630	0.655	0.761
1995	0.379	0.401	0.557	0.596
2000	0.369	0.539	0.543	0.698
2005	0.455	0.536	0.612	0.720
상위 16개 보험회사 기준				
1985	0.452	0.544	0.646	0.789
1990	0.653	0.793	0.782	0.913
1995	0.531	0.582	0.683	0.769
2000	0.563	0.701	0.727	0.875
2005	0.644	0.762	0.781	0.891
허핀달 허쉬만 지수				
1985	207	319	461	896
1990	425	753	825	1065
1995	247	288	561	646
2000	266	489	525	1161
2005	410	522	777	971

주 : 1) 동일그룹 내 계열사들이 동일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사결정 단위가 그룹이 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들을 그룹 기준으로 정의
 자료 : Grace and Klein (2007)

미국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2007년 원수보험료를 이용해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 수치를 구한 결과, 2007년 손해보험 시장에서 상위 4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28.7%, 상위 8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43.5%로 나타났다.

3) 자국 시장 내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미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997년 이래 크게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은 1997년 13%에서 2006년 30%로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 시장점유율은 1997년 8.8%에서 2002년 17%까지 증가한 뒤 다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며 2006년 1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외국 보험회사의 미국 보험시장점유율¹⁾

주 : 1) OECD는 외국 기업(foreign company)을 국가 외부에 설립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 보험회사도 이러한 정의를 따름. 또한 이 내용은 <그림 III-10>, <그림 III-13>, <표 III-28>에도 동일하게 적용. 외국인 관리 기업(foreign-controlled company)은 국내 기업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 기업의 정의는 각 국가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시장점유율은 영업보험료를 기준으로 구한 것임.

자료 : OECD

미국 전체 생명보험회사 수에서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비율은 2006년 10%로, 지난 5년간 이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생명보험시장에 참여해온 주요 5개 국가(소유 보험회사 수 기준)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변동이 없었다. 주요 5개국은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로, 2006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24, 네덜란드가 19, 영국이 17, 프랑스 13, 스위스가 12개의 미국 생명보험회사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미국의 전체 손해보험회사 수에서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비율은 2006년 10%로 2002년 12%에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미국의 외국 생명보험회사 (2002~2006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	1,284	1,227	1,179	1,119	1,072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수	134	126	122	116	110
외국 생명보험회사비중(%)	10.4	10.3	10.3	10.4	10.3

주 :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외국 생명보험회사로 보았음.
자료 :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

<표 III-6> 국가별 미국 생명보험회사 소유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캐나다	29	25	25	24	24
영국	12	17	17	17	17
네덜란드	41	37	27	22	19
프랑스	7	11	11	11	13
스위스	16	12	16	16	12
기타	29	24	26	26	25
전체	134	126	122	116	110

주 :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 소유 보험회사로 보았음. 여러 국가의 외국인이 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들이 보험회사를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다고 가정하였음.

자료 : 미국 생명보험협회 (ACLI)

<표 III-7> 미국의 외국인 소유 손해보험회사 (2002~2006년)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	3,369	3,385	3,405	3,239	3,288
외국 손해보험회사	392	383	330	306	323
외국 손해보험회사 지점	9	11	10	8	9
외국 손해보험회사 및 외국 손해보험회사 지점의 비중(%)	11.9	11.6	10.0	9.7	10.1

자료 : OECD(2008)

4) 해외직접투자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은 '해외직접투자'를 직·간접적으로 해외 법인기업의 의결권을 10% 이상 또는 비법인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¹²⁾. 2000~2007년 간 직접투자대조표를 살펴본 결과, 미국 보험산업의 대외직접투자잔액은 전 산업과 달리 외국인의 대미직접투자잔액보다 전 기간에 걸쳐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대외직접투자잔액은 각각 450억 달러와 510억 달러였던 데 반해, 외국의 대미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직접투자잔액은 각각 620억 달러와 660억 달러였다.

미국의 대외 보험산업 직접투자는 상당히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미국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의 대외 직접투자잔액은 손해보험회사가 2006년 마이너스 증가율(-2%)을 제외하고는 전 기간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대미 보험산업 투자는 손해보험회사 투자잔액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0.9%와 -5.3%, 생명보험회사 투자잔액이 2001년에 -11.7%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큰 변동을 보였다.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직접투자잔액은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에서 모두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작게 나타났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생명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7년 동안 미국의 대외 생명보

12) IMF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작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험회사 직접투자잔액은 연평균 18.7%, 외국인의 대미 생명보험회사 직접투자 잔액은 연평균 6.8%로 증가한 반면, 미국의 대외 손해보험회사 직접투자잔액은 연평균 5.3%, 외국인의 대미 손해보험회사 직접투자잔액은 연평균 3.8%로 증가했다.

미국은 외국인의 대미 보험산업 투자이익률(당해연도 직접투자 잔액과 이익의 비율)에 비해 대외 보험산업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외국인은 미국의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부문에서 각각 8.5%, 8.2%, 8.9%의 투자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대외 동 부문들에 대한 직접투자를 통해 각각 11.7%, 13.7%, 10.8%의 투자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향은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부문에서 2000년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나타났으며, 특히 손해보험회사 부문에서 2004~2005년, 생명보험회사 부문에서 2002~2004년에 두 이익률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직접투자대조표 (2000~2007년)¹⁾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3	2005	2006	2007
대외투자					
전 산업	1,316,247	1,663,089	1,983,757	2,105,803	2,332,588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구성비) ²⁾	53,666 (4.1)	78,874 (4.7)	98,970 (5.0)	103,424 (4.9)	109,498 (4.7)
보험회사 - 생보 제외 (구성비)	35,802 (2.7)	43,659 (2.6)	48,968 (2.5)	48,104 (2.3)	51,053 (2.2)
생명보험회사 (구성비)	13,990 (1.1)	24,234 (1.5)	36,634 (1.8)	42,947 (2.0)	45,323 (1.9)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 관련활동 ³⁾ (구성비)	3,875 (0.3)	10,983 (0.7)	13,367 (0.7)	12,374 (0.6)	13,122 (0.6)
외국인투자					
전 산업	1,256,867	1,311,176	1,446,118	1,581,822	1,749,104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구성비)	103,761 (8.3)	107,922 (8.2)	111,437 (7.7)	133,923 (8.5)	128,970 (7.4)
보험회사 - 생보 제외 (구성비)	54,324 (4.3)	61,760 (4.7)	52,156 (3.6)	71,075 (4.5)	65,572 (3.7)
생명보험회사 (구성비)	42,886 (3.4)	43,798 (3.3)	58,265 (4.0)	61,672 (3.9)	62,207 (3.6)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 관련활동 (구성비)	6,551 (0.5)	2,365 (0.2)	1,016 (0.1)	1,176 (0.1)	1,192 (0.1)

주 : 1) 특정시점에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잔액 및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잔액을 기록한 것. 본 자료는 취득원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산업은 관계회사(affiliate) 또는 피투자회사를 기준으로 분류되었음.

2) 구성비는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3) Agencies, brokerages, and other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표 III-9> 직접투자이익(Direct Investment Income)¹⁾ - 2000~2007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3	2005	2006	2007
대외투자					
전 산업	133,692	155,258	240,598	265,052	291,475
(이익률) ²⁾	(10.2)	(9.3)	(12.1)	(12.6)	(12.5)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4,982	8,311	10,616	10,793	12,833
(구성비) ³⁾	(3.7)	(5.4)	(4.4)	(4.1)	(4.4)
(이익률)	(9.3)	(10.5)	(10.7)	(10.4)	(11.7)
보험회사 - 생보 제외	3,172	4,894	5,556	6,872	6,992
(구성비)	(2.4)	(3.2)	(2.3)	(2.6)	(2.4)
(이익률)	(8.9)	(11.2)	(11.3)	(14.3)	(13.7)
생명보험회사	1,409	2,781	4,545	3,237	4,889
(구성비)	(1.1)	(1.8)	(1.9)	(1.2)	(1.7)
(이익률)	(10.1)	(11.5)	(12.4)	(7.5)	(10.8)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관련활동 ⁴⁾	401	636	515	685	953
(구성비)	(0.3)	(0.4)	(0.2)	(0.3)	(0.3)
(이익률)	(10.3)	(5.8)	(3.9)	(5.5)	(7.3)
외국인투자					
전 산업	47,921	57,294	97,631	119,362	108,396
(이익률)	(3.8)	(4.4)	(6.8)	(7.5)	(6.2)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4,462	4,306	4,278	9,657	10,967
(구성비)	(9.3)	(7.5)	(4.4)	(8.1)	(10.1)
(이익률)	(4.3)	(4.0)	(3.8)	(7.2)	(8.5)
보험회사 - 생보 제외	-209	2,543	96	4,542	5,399
(구성비)	(-0.4)	(4.4)	(0.1)	(3.8)	(5.0)
(이익률)	(-0.4)	(4.1)	(0.2)	(6.4)	(8.2)
생명보험회사	4,307	1,569	4,177	4,951	5,515
(구성비)	(9.0)	(2.7)	(4.3)	(4.1)	(5.1)
(이익률)	(10.0)	(3.6)	(7.2)	(8.0)	(8.9)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관련활동	365	194	5	165	53
(구성비)	(0.8)	(0.3)	(0.0)	(0.1)	(0.0)
(이익률)	(5.6)	(8.2)	(0.5)	(14.0)	(4.5)

주 : 1)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잔액(U.S. direct investment position abroad)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잔액(foreign direct investment position in the U.S.)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을 가리킴. 동 수입은 관계회사 순이익(net income) 지분, 순이자수익 등을 포함. 본 자료는 취득원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원천과세가 적용된 것임(net of withholding taxes). 산업은 관계회사(affiliate)만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음.

2) 당해연도 직접투자 잔액과 이익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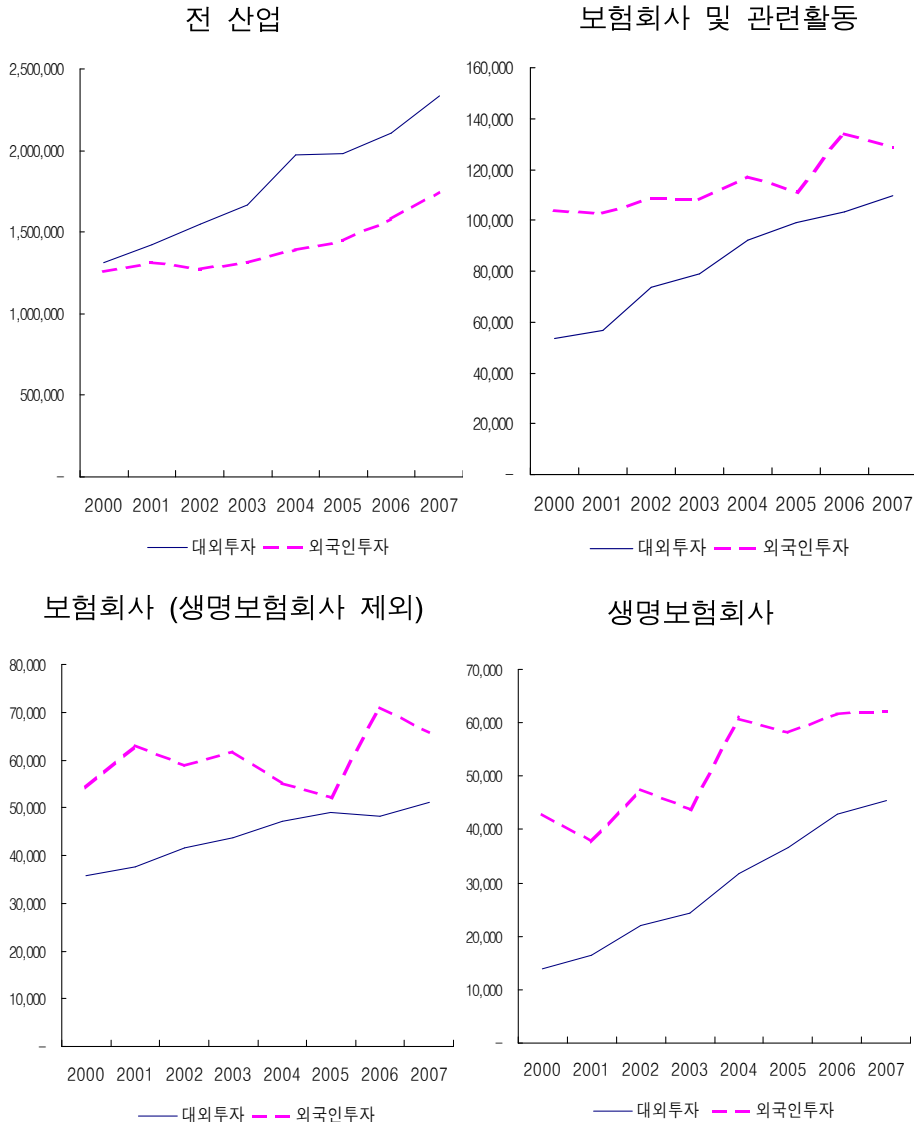
3) 구성비는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4) Agencies, brokerages, and other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III-5> 직접투자대조표 (2000~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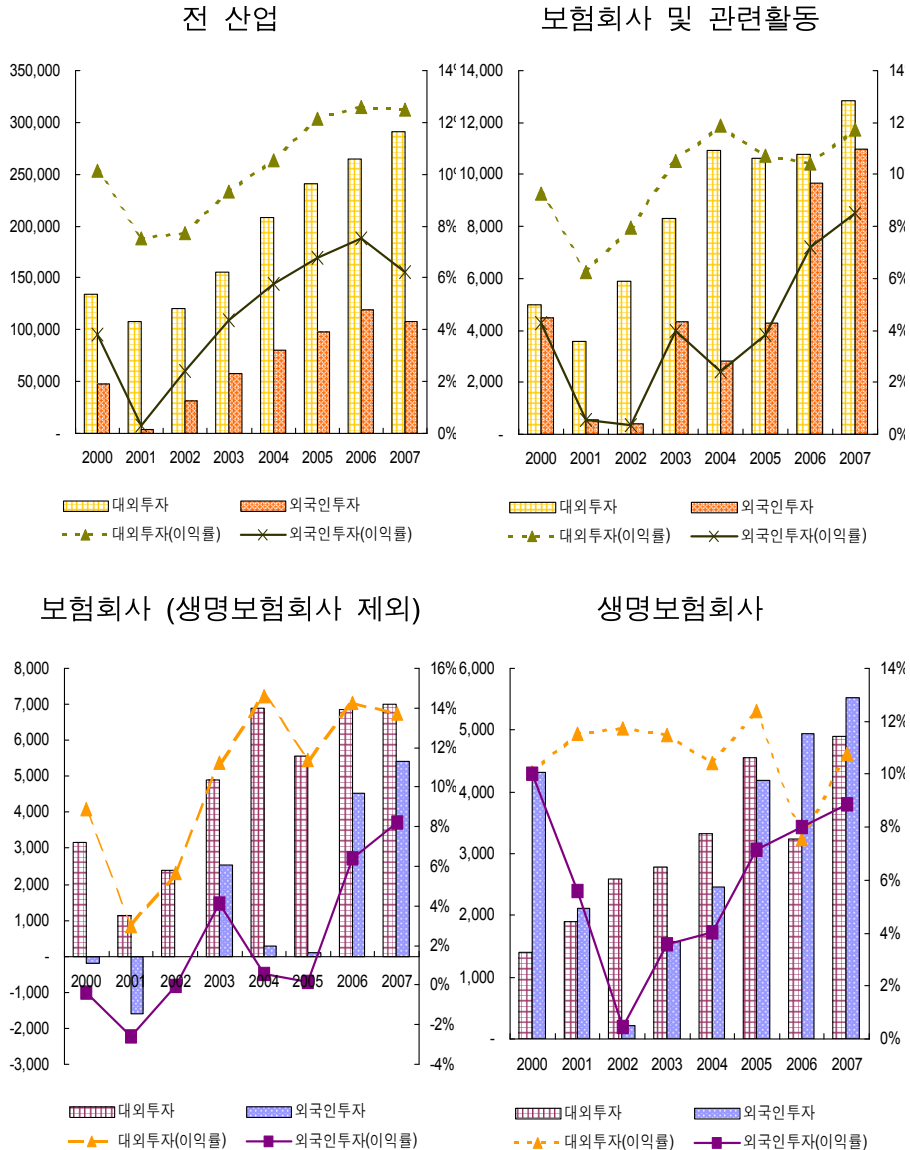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III-6> 직접투자이익 추이 (2000~2007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직접투자 유출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0년 19억 달러에서 2007년 47억 달러로 증가한 반면,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유출은 2004년 이후 둔화되는 추세이다. 미국 보험 부문으로의 직접투자 유입액은 전 산업과 같이 2000년대 초반 크게 감소한 뒤 2006년에 큰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7년에 전 산업과 달리 다시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생명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00년에 301억 달러, 손해보험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06년에 200억 달러로 상당히 컸던 것이 특이할 만한 현상이었다.

<표 III-10> 미국 보험부문의 직접투자 - 유출(outflow) 및 유입(inflow)¹⁾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3	2005	2006	2007
유출(outflow)					
전 산업	142,627	121,565	13,601	190,160	262,223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구성비) ²⁾	4,078 (2.9)	7,475 (6.1)	7,125 (52.4)	9,464 (5.0)	8,853 (3.4)
보험회사 - 생명보험 제외 (구성비)	2,972 (2.1)	4,252 (3.5)	3,223 (23.7)	4,536 (2.4)	3,095 (1.2)
생명보험회사 (구성비)	1,931 (1.4)	2,470 (2.0)	3,290 (24.2)	5,789 (3.0)	4,738 (1.8)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관련활동 ³⁾ (구성비)	-825 (-0.6)	755 (0.6)	612 (4.5)	-860 (-0.5)	1,020 (0.4)
유입(inflow)					
전 산업	314,007	49,947	92,719	203,060	194,577
보험회사 및 관련 활동 (전 산업 구성비)	36,951 (11.8)	-2,070 (-4.1)	187 (0.2)	33,104 (16.3)	-1,595 (-0.8)
보험회사 - 생명보험 제외 (구성비)	7,051 (2.2)	2,373 (4.8)	23 (0.0)	20,095 (9.9)	-3,630 (-1.9)
생명보험회사 (구성비)	30,123 (9.6)	-4,853 (-9.7)	312 (0.3)	12,817 (6.3)	1,992 (1.0)
대리점, 중개업 및 기타 보험관련활동 (구성비)	-223 (-0.1)	410 (0.8)	-149 (-0.2)	192 (0.1)	4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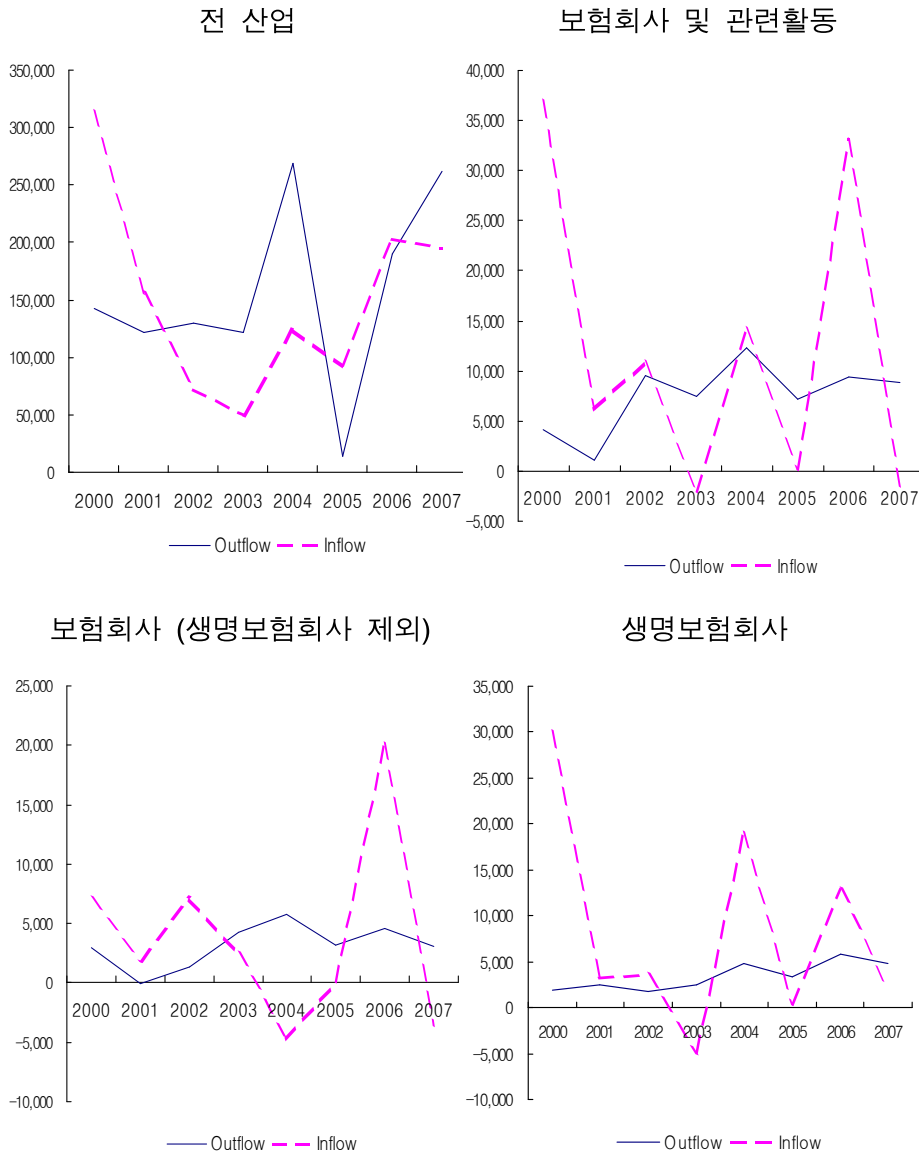
주 : 1) 본 자료는 취득원가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산업은 관계회사(affiliate)만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구성비는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3) Agencies, brokerages, and other insurance related activities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그림 III-7> 미국 보험부문의 직접투자 - 유출(outflow) 및 유입(inflow)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5)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6개 조사 대상 보험회사 중 가장 높은 국제화 정도를 보인 곳은 AIG로, 2007년 TNI가 46.8%였으며, 전체 수익과 자산에서의 해외 비중은 2007년 각각 49.4%와 44.3%였다. 2003~2007년간 수익, 영업이익, 자산에서의 국제화 비중을 살펴본 결과, 수익과 자산의 국제화 비중은 전 기간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영업이익의 국제화 비중은 2003년 49.4%에서 2005년 70.2%로 급상승한 뒤, 2006년 다시 49.2%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7년간 수익의 성장은 주로 국제 부문이 견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경우, 국내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1.5%p였던 반면, 국제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4.0%p였다. 국제 부문의 수익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의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3~2007년 전 기간에 걸쳐 국제 부문의 수익성이 국내 부문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국제 부문의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2.6%였던 반면, 국내 부문에서는 2.1%였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TNI는 37.1%로, 다른 보험회사들과 달리 수입보험료의 국제화 비중이 큰 변동을 보였다. 동 비중은 2000년 35%에서 2001년 22.7%로 급락한 뒤, 다시 2006년 18.2%에서 2007년 37.1%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에는 국제 부문으로부터의 수입보험료가 급증하며, 동 기간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을 27.5%p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TNI는 27.1%로, 2000년대 초 국제 부문의 수익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수익에서 해외부문의 비중이 2000년 11.3%에서 2002년 27.5%로 크게 상승하였다.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AIG에서와 같이 전 기간에 걸쳐 국제 부문이 국내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AIG에 비해서는 국내외 부문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보였다.

메트라이프의 TNI는 7.9%로 6개 보험회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수입보험료의 증가율에 대한 국제 부문의 기여도도 미미했다. 총자산이익률(ROA)에서도 국제 부문이 국내 부문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1> 미국의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¹⁾

(단위 : %, 백만 달러)

보험회사	해외 비중			TNI	진출국수 ³⁾ (2003년)	수익 ⁴⁾ (2007년)
	수입 ²⁾	자산 ²⁾	종업원			
MetLife	11.1	4.7	-	7.9	11	53,150
Prudential Financial ⁵⁾	31.3	23.0	-	27.1	18	34,401
AIG ⁵⁾	49.4	44.3	-	46.8	92	110,064
Berkshire Hathaway	37.1	-	-	37.1	21	118,245
Liberty Mutual	23.7	19.8	-	21.7	11	25,961
Chubb	21.8	-	-	21.8	16	14,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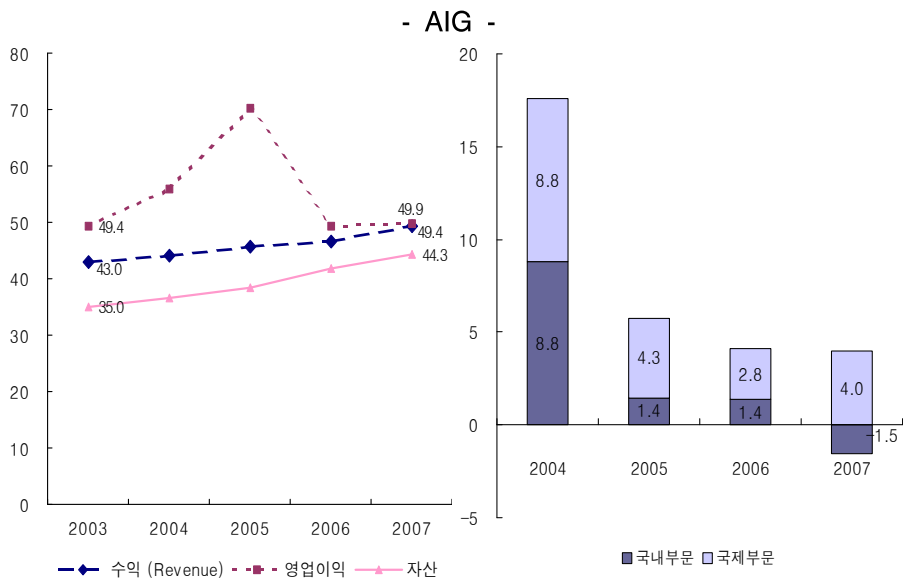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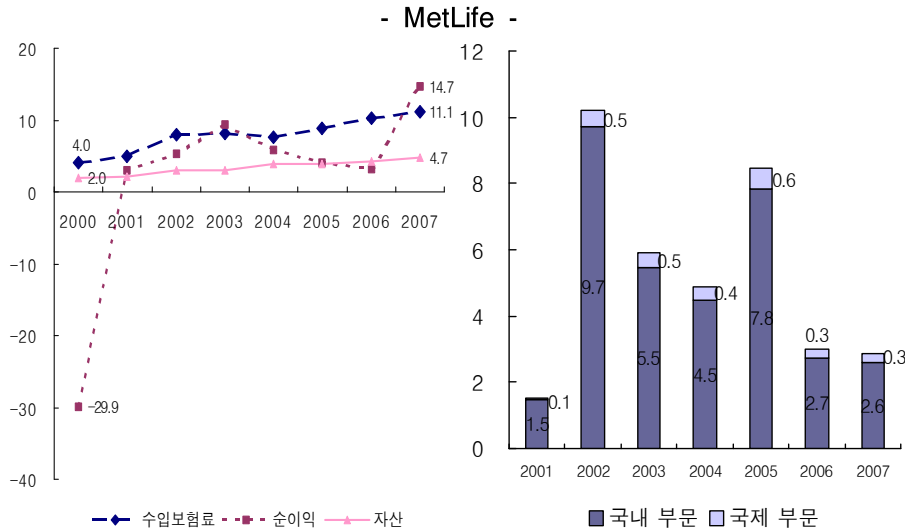
- 주 : 1) UNCTAD(2007)에서 선정한 세계 상위 30개 다국적기업(TNC) 중 미국 국적의 6개사를 조사하였음. 상위 30개 기업은 해외 총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 것임.
 2) MetLife와 Berkshire Hathaway는 수입보험료, 이외 4개사는 수익(Revenues)에 기초해 해외 비중을 구하였음. Prudential Financial, AIG와 Chubb의 비중은 전체 그룹 중 보험회사업 부문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구해진 것임.
 3) UNCTAD(2007)
 4) Fortune
 5) 보험회사업 부문만을 고려하였음.
-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그림 III-8> 미국 주요 보험회사의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2000~07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 %p)

국제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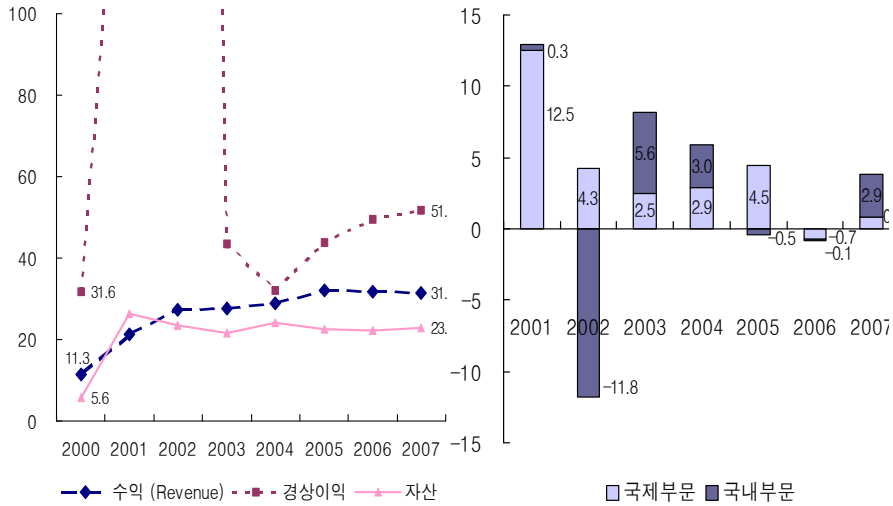
성장기여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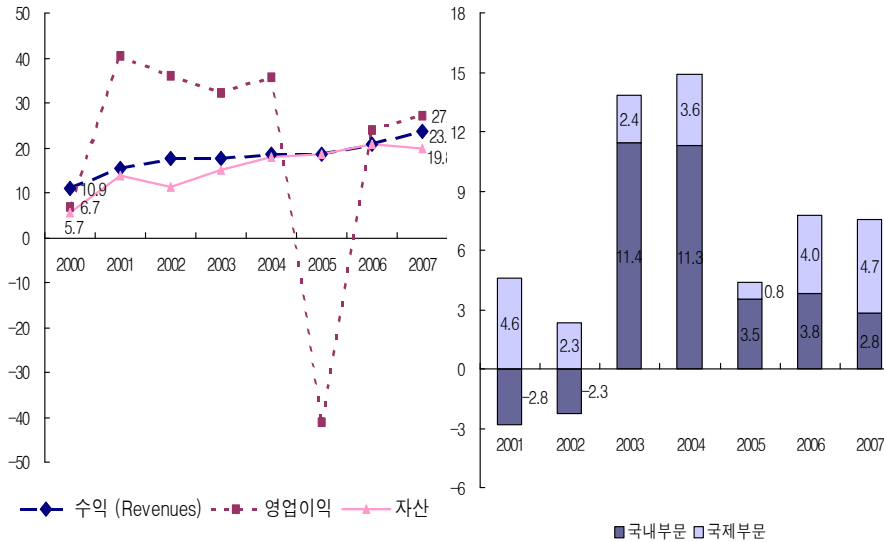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 Prudential Financial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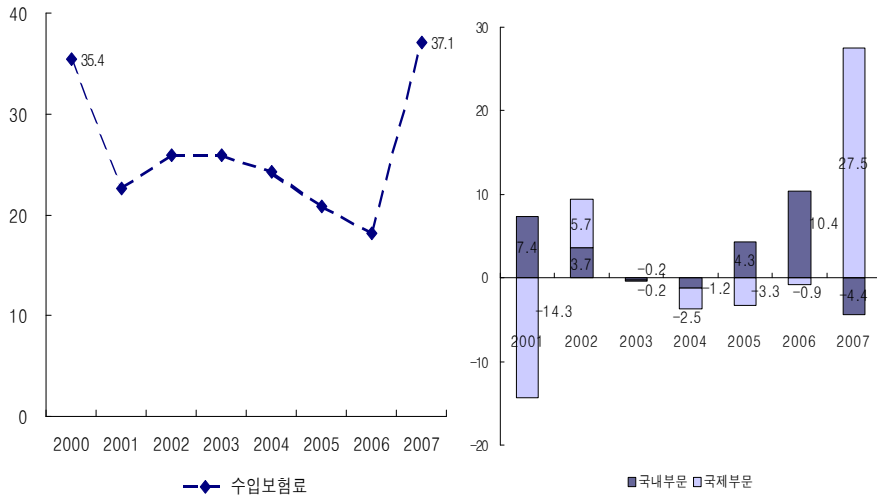
- Liberty Mutual Gro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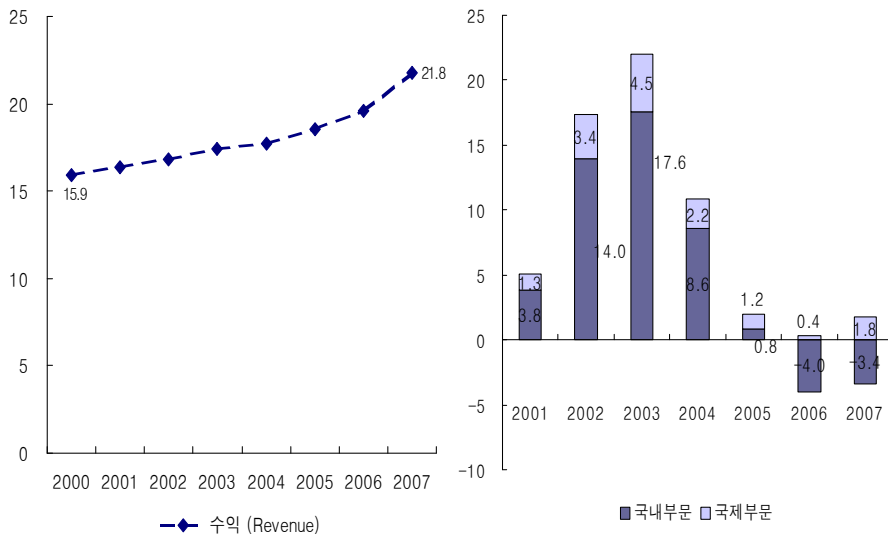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 Berkshire Hathaway -



- Chubb -



주 : 1) 수입보험료 또는 수익(Revenue)을 기준으로 구하였음. 기준과 관련된 세부설명은 <표 III-11>의 주석 참조.

2) 2001년과 2002년 국내외 보험부문 총 경상이익에서 국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78.7%와 702.5%였음.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표 III-12>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¹⁾

(단위 : %)

		2000	2003	2005	2006	2007
MetLife	국내부문	0.5	0.6	1.0	1.2	0.7
	국제부문	-5.6	2.1	1.0	0.9	2.4
Prudential Financial ²⁾	국내	0.5	0.6	1.0	0.8	0.8
	국제	4.2	1.8	2.6	2.7	2.9
AIG ²⁾	국내	-	1.8	0.8	2.5	2.1
	국제	-	3.2	3.1	3.3	2.6
Liberty Mutual Group	국내	0.5	0.5	1.3	2.2	1.7
	국제	0.7	1.3	-1.7	2.6	2.6

주 : 1) 각 보험회사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의 총자산이익률(ROA, Return on Assets)을 비교하였음.

2) Prudential Financial과 AIG의 수익성은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구하였음.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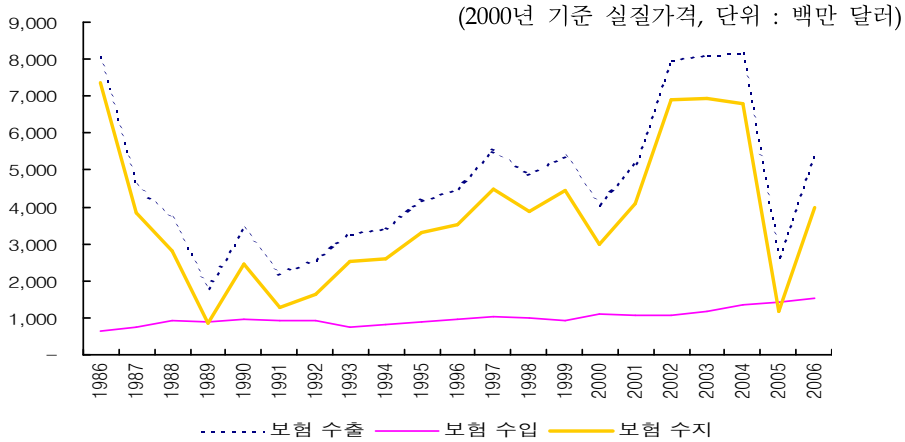
나. 영국

1) 보험수지

영국의 보험수입은 1986~2006년 동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 반면, 보험수출은 큰 변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보험 수입은 1986년 6억 5천만 달러(2000년 가격 기준)에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06년 15억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영국의 보험 수출은 1986년 74억 달러를 기록한 뒤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1989년 8억 7천만 달러까지 떨어졌고, 이후 2000년대 초까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뒤, 2002~2004년에는 약 8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유지하였으나 2005년 다시 26억 달러로 수출이 급락하였다.

영국의 보험수입은 전 기간에 걸쳐 안정적이었던 반면 보험수출에 따라 수지차가 발생하였다. 보험 수지는 1986년 74억 달러에서 1989년 8억 7천만 달러까지 하락한 뒤, 2002~2004년 약 7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2005년 다시 12억 달러로 하락했다.

<그림 III-9> 영국의 보험수지 (1986~2006년)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I-13> 영국의 보험수지 (1986~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86 ²⁾	1990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63,984	75,228	89,755	120,397	146,172	196,824
	수입	48,280	64,982	73,873	99,747	117,267	150,731
	수지	15,704	10,247	15,882	20,650	28,904	46,092
보험	수출	8,025	3,412	4,172	4,062	8,118	5,490
	(비중)	12.5	4.5	4.6	3.4	5.6	2.8
	수입	648	959	879	1,089	1,170	1,514
	(비중)	1.3	1.5	1.2	1.1	1.0	1.0
	수지	7,378	2,452	3,294	2,973	6,948	3,976
	(비중)	47.0	23.9	20.7	14.4	24.0	8.6
금융 서비스	수출	7,498	8,382	11,116	22,122	26,368	44,878
	(비중)	10.3	11.1	12.4	18.4	18	22.8
	수입	382	470	2,198	4,471	6,140	9,219
	(비중)	0.7	0.7	3.0	4.5	5.2	6.1
	수지	7,116	7,911	8,918	17,651	20,228	35,659
	(비중)	39.1	77.2	56.2	85.5	70.0	77.4

주 : 1)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2) 금융서비스는 1987년의 자료임.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2) 자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영국 보험시장의 집중도는 1996~2006년 동안 크게 증가되었다. 영국 생명 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30.7%에서 2006년 43.6%로 13%p가량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기간 44.8%에서 75.3%로 31%p가량 증가했다. 손해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도 1996년 30.8%에서 2006년 51.8%로 21%p 증가하였으며,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도 동 기간 44.9%에서 69.2%로 24.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영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단위 : %)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집중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6	30.7	30.8
2006	43.6	51.8
상위 10개 보험회사		
1996	44.8	44.9
2006	75.3	69.2
상위 15개 보험회사		
1996	55.5	52.2
2006	93.0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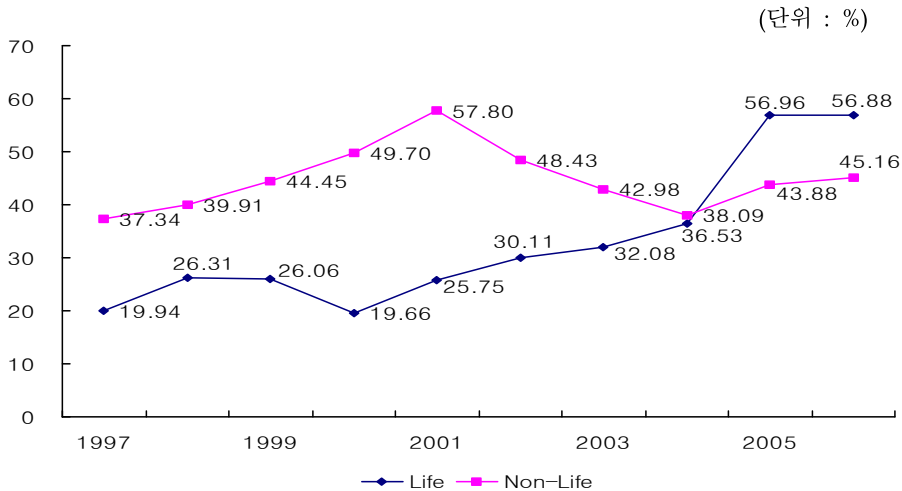
주 : 시장집중도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측정되었음.
자료 : CEA(2008)

3) 자국 시장 내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영국 손해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1997~2006년 동안 37%에서 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점유율은 1997년 37%에서 2001년 58%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4년에는 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997~2006년 동안 20%에서 57%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4~2005년간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간 생명보험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37%에서 57%로 20%p 증가했다.

<그림 III-10> 외국 보험회사의 영국 보험시장점유율



4)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5개 조사 대상 보험회사 중 가장 높은 TNI를 보인 곳은 로얄 앤드 선 얼라이언스(Royal and Sun Alliance)로, 동 보험회사의 2007년도 TNI는 55.3%였다. 그러나 로얄 앤드 선 얼라이언스의 수입보험료는 2001~2004년간 줄곧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국제 부문과 국내 부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2004년간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보험료 하락이 두드러졌다. 미국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03년 10억 9천만 파운드(경상가격)에서 2004년 1억 천만 파운드(경상가격)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비바(Aviva)의 2007년 TNI는 51.7%였으며, 이 중 38.9%p는 영국 이외 유럽 지역에 해당했다. 비유럽 부문이 아비바의 전체 수입보험료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200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비바의 수입

보험료에서 비유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5%에서 2007년 17.1%로 크게 증가했으며, 아비바 전체 수입보험료의 성장률도 단독으로 7.5%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기간 국내 부문과 영국 외 유럽 부문은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에 각각 -1.6%p와 -1.1%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비바의 총자산에 대한 세전순이익의 비율은 국내 부문과 국제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유럽 부문에서 동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7년에 0.1%까지 떨어지며 타 부문의 수익성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영국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단위 : %)

보험회사	해외 비중			TNI		진출국수 ³⁾ (2003년)
	수입 ¹⁾	자산	종업원 ²⁾			
Aviva	(유럽 ³⁾) 44.8	43.8	28.2	38.9	(해외)	32
	(비유럽) 17.1	9.0	12.2	12.8	51.7	
Standard Life	21.6	15.4	-	18.5		8
Royal and Sun Alliance	53.8	54.8	57.3	55.3		30
Prudential plc ⁴⁾	46.0	28.2	-	37.1		18
Legal and General	(유럽 ⁵⁾) 3.6	1.3	3.6	2.9	(해외)	4
	(비유럽) 1.9	0.9	4.1	2.3	5.1	

주 : 1) Aviva와 Royal and Sun Alliance는 수입보험료(net written premium), Standard Life, Prudential plc와 Legal and General은 수익(Revenues)으로 구하였음.

2) 연간 평균 종업원 수를 이용하였음.

3) UNCTAD(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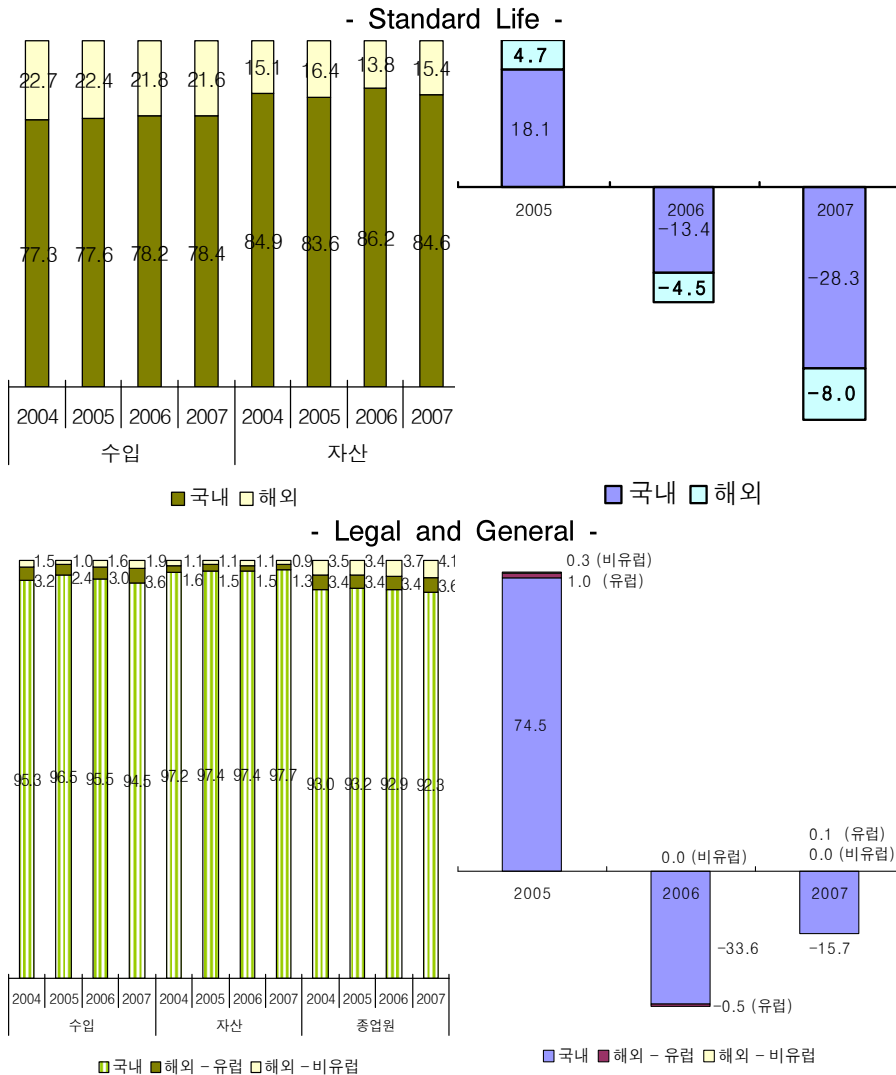
4) 보험 부문만을 고려하였음(자산관리 사업 부문 제외).

5) 자국(영국)을 제외한 비중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프루덴셜(Prudential)의 2007년 TNI는 37.1%였으며, 특히 2006년부터 전체 수익에서 해외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중은 2005년 26%에서 2006년 39%로 확대됐다. 프루덴셜의 국내 부문은 최근 수익이 악화되어, 2006년과 2007년에 전체 수익 성장률에 각각 22.0%p와 13.1%p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 추이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주 : 1) 성장기여도의 측정 기준은 <표 III-15>의 주석 참조

2) 2002~2005년 국제 부문은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및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동의 이머징마켓을 포함. 2006~2007년 국제 부문은 스칸디나비아,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를 포함하며, 이머징은 라틴아메리카, 발트지방, 아시아, 중동, 중앙 및 동유럽을 포함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표 III-16>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Aviva ¹⁾	국내	0.6	1.5	1.2	0.6
	해외-유럽	1.0	0.9	1.3	0.9
	해외-비유럽	2.9	4.7	1.0	0.1
Royal and Sun Alliance ²⁾	국내	4.5	5.2	5.4	5.0
	해 외	미국	-5.2	-0.9	
		스칸디나비아	3.3	4.1	
		이머징		3.1	3.4
		국제	4.2	4.1	4.3

주 : 1) 자산과 세전순이익의 비율로 구하였음.

2) 영업이익과 자산의 비율로 구했음. 각 부문의 정의는 앞의 <그림 III-11>의 주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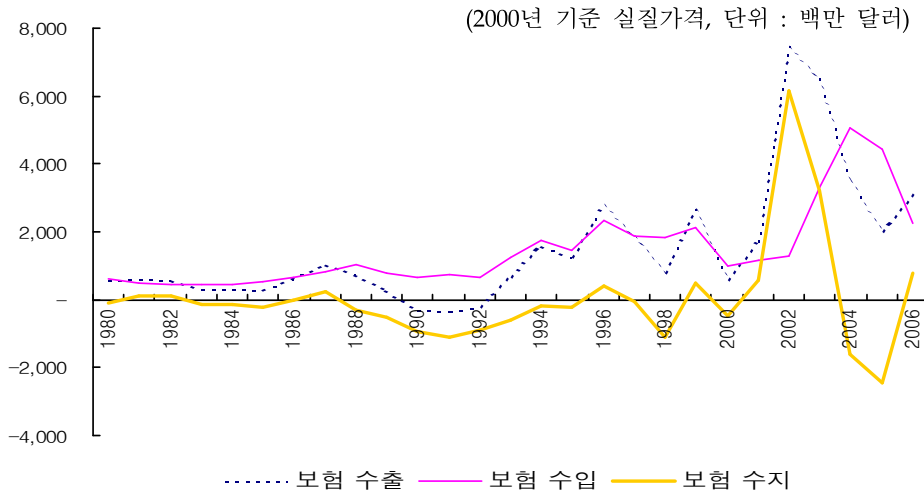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다. 독일

1) 보험 수지

독일의 보험 수출입 규모는 1980~1990년대 중반까지 1987~1988년을 제외하고 10억 달러 미만으로 크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입 모두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확대되기 시작했다. 1987년의 수출 규모와 1988년의 수입 규모는 각각 10억 4천만 달러와 10억 5천만 달러였다. 보험 수출은 2002년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성장하며 74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후 줄곧 감소하며 2005년에는 2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2년 이러한 큰 폭의 수출 증가로 인해 동 기간 보험 수지가 61억 5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보험 수입은 2003~2004년에 크게 증가해 2004년에 50억 5천만 달러에 달하기도 했으나, 이후 줄곧 하락하였다.

<그림 III-12> 독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I-17> 독일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51,988	40,959	74,928	81,330	83,227	119,068	164,347
	수입	71,462	48,410	101,700	134,195	137,380	166,420	206,680
	수지	-19,473	-7,451	-26,772	-52,865	-54,154	-47,352	-42,333
보험	수출	553	293	-305	1,265	555	6,509	3,056
	(비중)	1.1	0.7	-0.4	1.6	0.7	5.5	1.9
	수입	634	524	649	1,474	1,012	3,309	2,252
	(비중)	0.9	1.1	0.6	1.1	0.7	2.0	1.1
	수지	-81	-231	-954	-209	-457	3,200	804
	(비중)	0.4	3.1	3.6	0.4	0.8	-6.8	-1.9
금융 서비스	수출	-	-	899	2,462	3,539	3,866	7,934
	(비중)	-	-	1.2	3.0	4.3	3.2	4.8
	수입	-	-	359	569	1,997	2,324	5,116
	(비중)	-	-	0.4	0.4	1.5	1.4	2.5
	수지	-	-	540	1,893	1,542	1,542	2,819
	(비중)	-	-	-2.0	-3.6	-2.8	-3.3	-6.7

주 :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2) 자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영국의 경우와 같이, 독일 보험시장의 집중도도 1996~2006년간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생명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 30.5%에서 2006년 46.5%로 16%p 상승하였으며,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동 기간 45.8%에서 63.7%로 17.9%p 상승했다. 1996년 독일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생명보험 시장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10년간 집중도가 크게 상승하며 2006년에는 생명보험 시장보다 높은 집중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집중도는 1996년 23%에서 2006년 44.7%로 21.7%p 상승하였으며, 상위 10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1996년 35.6%에서 64.9%로 29.3%p 상승했다.

<표 III-18> 독일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단위 : %)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집중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6	30.5	23.0
2006	46.5	44.7
상위 10개 보험회사		
1996	45.8	35.6
2006	63.7	64.9
상위 15개 보험회사		
1996	56.3	45.5
2006	74.2	76.0

주 : 시장집중도는 보험료 기준으로 측정되었음.
자료 : CEA(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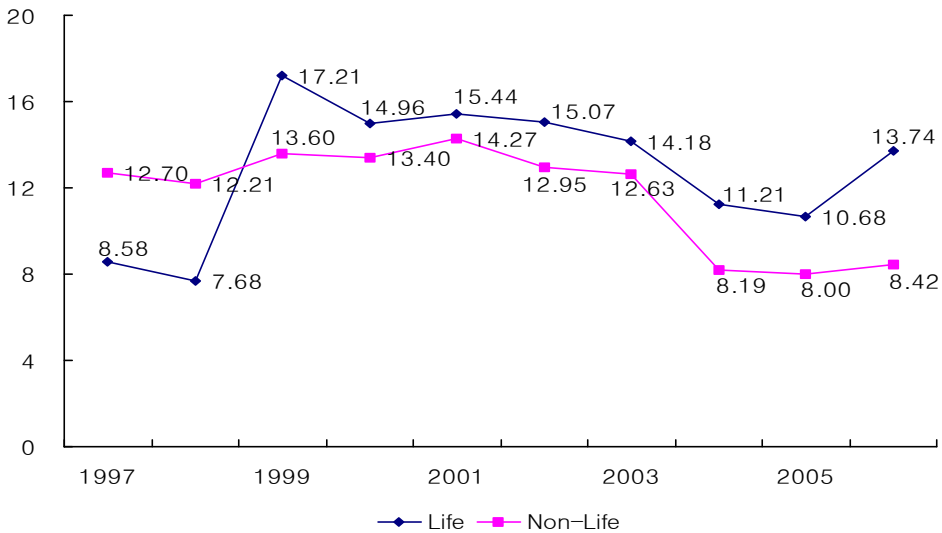
3) 자국 시장 내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1997~2006년 동안 독일 생명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8.6%에서 13.7%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동 기간 영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이 20%에서 57%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997~2006년 동안 독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2.7%에서 8.4%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2004년 동안 동 점유율이 12.6%에서 8.2%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외국 보험회사의 독일 보험시장점유율

(단위 : %)



자료 : OECD

4)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알리안츠(Allianz)의 2007년 TNI는 생명보험 부문과 손해보험 부문에서 각각 61.5%와 68.1%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부문과 손해보험 부문의 해외 수입 및 자산에서 유럽의 비중은 모두 비유럽 비중을 크게 상회했다. 손해보험 부문의 전체 경과보험료 및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독일 외 유럽의 비중은 2007년 각각 56.9%와 49.8%였으며, 국내 비중까지 고려할 경우 경과보험료 및 총자산에서 유럽의 비중은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부문의 전체 영업보험료 및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독일 외 유럽의 비중은 2007년 각

각 42%와 39.5%였으며, 국내 비중까지 고려할 경우 유럽의 비중은 각각 76%와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부문에서 독일 외 유럽 부문은 2007년 알리안츠의 보험료 성장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부문은 2007년 손해보험 부문의 경과보험료 성장을 1.1%p, 생명보험 부문의 영업보험료 성장을 4.2%p 견인했다. 반면 NAFTA 지역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부문의 보험료 성장에 모두 마이너스 기여를 했다. 특히 생명보험 부문에서 NAFTA 지역의 비중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동 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알리안츠 생명보험 부문 영업보험료 성장률을 각각 4.9%p와 4.0%p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에서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며,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0.7%와 2.2%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과 총자산의 비율은 해외 부문이 국내 부문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부문에서는 특히 비유럽 해외 부문이 타 부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내부문과 독일 외 유럽 부문의 동 비율이 2005~2007년간 3%대였던 반면, 비유럽 부문은 동 기간 내내 5% 중반의 비율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에서는 독일 외 유럽 지역과 비유럽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두 부문 모두 국내 부문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7년 기준 독일 외 유럽 지역과 비유럽 지역의 동 비율은 각각 0.9%와 1.0%였던 반면, 국내 부문은 0.5%였다.

뮌헨 재보험회사(Munich Re)는 2007년 전체 수입의 30.1%를 독일 외 유럽 지역에서, 28.0%를 비유럽 지역에서 거둬들여 58.1%의 TNI를 기록하였다. 특히 2000~2007년의 기간 중 국내부문의 수입 비중이 51.8%에서 41.9%로 크게 줄어들며 2004년도부터 국내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다.

하노버 재보험회사(Hannover Re)는 2007년 83.2%의 높은 TNI를 기록하였다. 이 중 46.5%p가 비유럽, 36.7%p가 유럽에 해당해 해외 부문에서 비유럽권의 비중이 다른 유럽 보험회사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유럽 부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영업보험료에서 독일 이외 유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8%에서 2007년 36.7%로 증가했다. 반면 전체 영업보험료에서 비유럽 부문의 비중은 2004년

61.5%에서 2007년 46.5%로 하락을 보였다. 특히 북아메리카 부문의 비중 하락이 2004년 49.8%에서 2007년 27.5%로 두드러졌다. 이로 인해 북아메리카 부문은 2006년과 2007년, 전체 영업보험료 성장에 각각 -9.1%와 -13.1%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독일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단위 : %)

보험회사	해외 비중			TNI		진출국수 ²⁾ (2003년)
	수입 ¹⁾	자산	종업원			
Allianz - P/C	(유럽) 56.9	49.8	-	53.4	(해외)	62
	(비유럽) 16.2	13.1	-	14.7	68.1	
Allianz - L/H	(유럽) 42.0	39.5	-	40.8	(해외)	
	(비유럽) 24.4	17.2	-	20.8	61.5	
Ergo	19.8	13.3	-	16.6		21
Munich Re	(유럽) 30.1	-	-	58.1		36
	(비유럽) 28.0	-	-			
Hannover Re	(유럽) 36.7	-	-	83.2		22
	(비유럽) 46.5	-	-			

주 : 1) Ergo 및 Allianz Property/Casualty 부문의 수입은 보유경과보험료(net premiums earned), Allianz Life/Health 부문의 수입은 Statutory premiums, Munich Re와 Hannover Re는 총수입보험료(Gross premiums written)를 기준으로 작성

2) UNCTAD(2007)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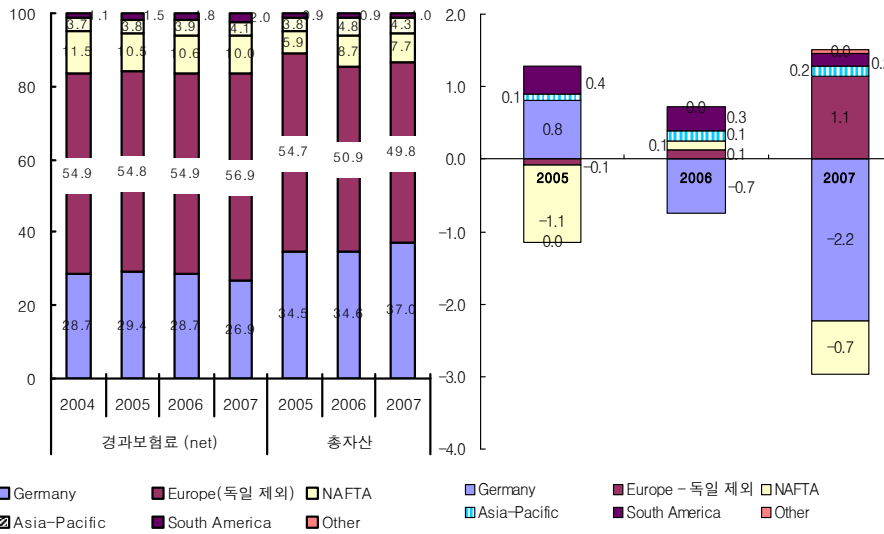
<그림 III-14>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실질가격,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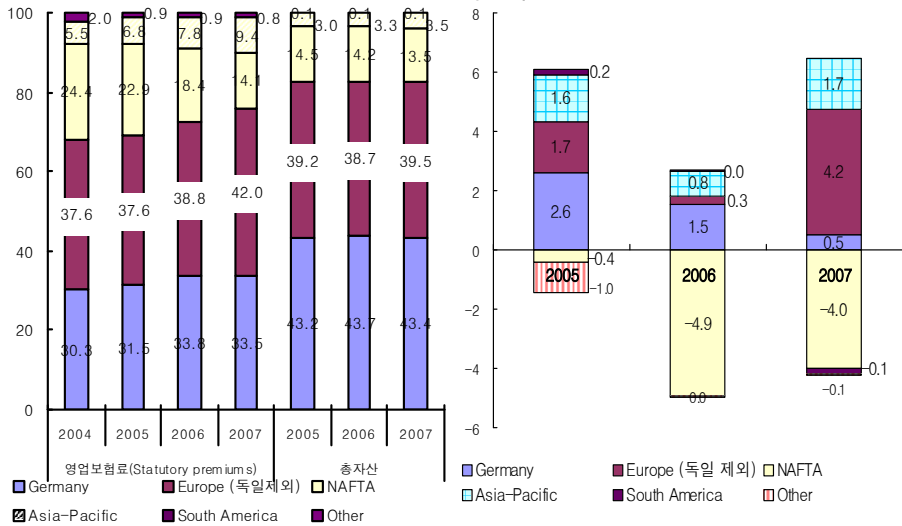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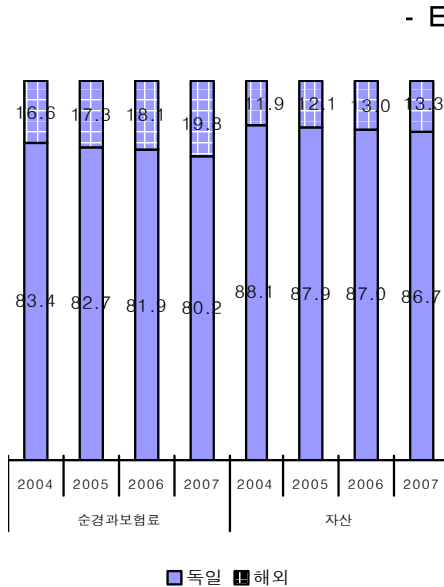
- Allianz (P/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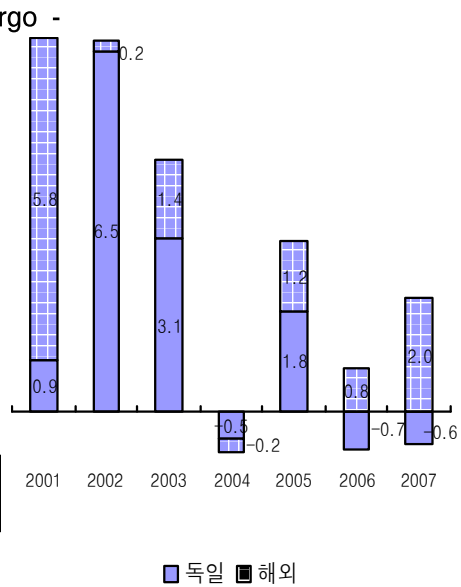
- Allianz (L/H)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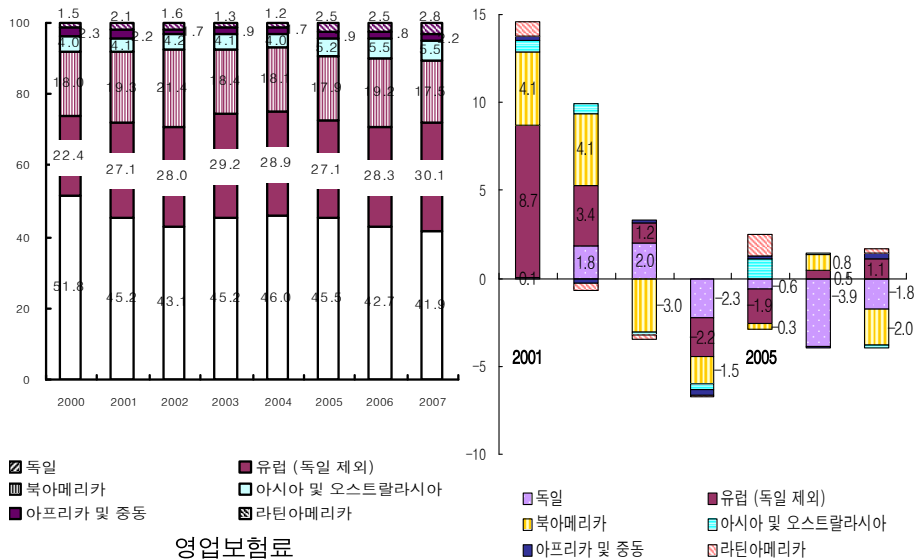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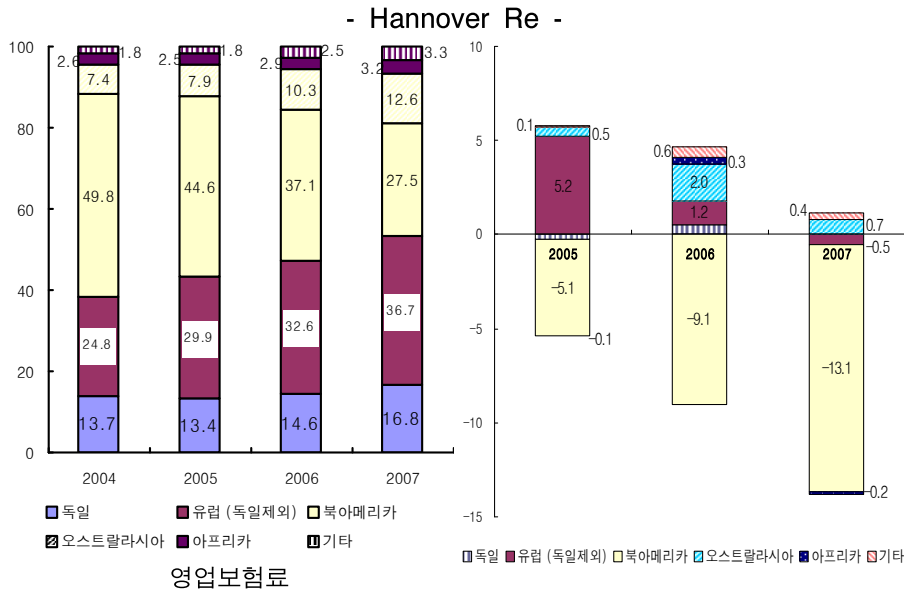


- Munich Re -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주 : 1) 성장기여도의 측정 기준은 <표 III-19>의 주석 참조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표 III-20>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0~07년)¹⁾

(단위 : %)

		2000	2004	2005	2006	2007
Allianz - P/C	국내	-	-	3.8	3.0	3.1
	해외-유럽	-	-	3.1	3.7	3.7
	해외-비유럽	-	-	5.6	5.4	5.6
Allianz - L/H	국내	-	-	0.3	0.4	0.5
	해외-유럽	-	-	0.8	0.8	0.9
	해외-비유럽	-	-	0.6	0.8	1.0
Ergo	국내	1.2	0.4	0.9	0.7	0.8
	해외	0.4	-0.4	0.9	1.8	1.4

주 : 1) 세 보험회사 모두 총자산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로 구하였음.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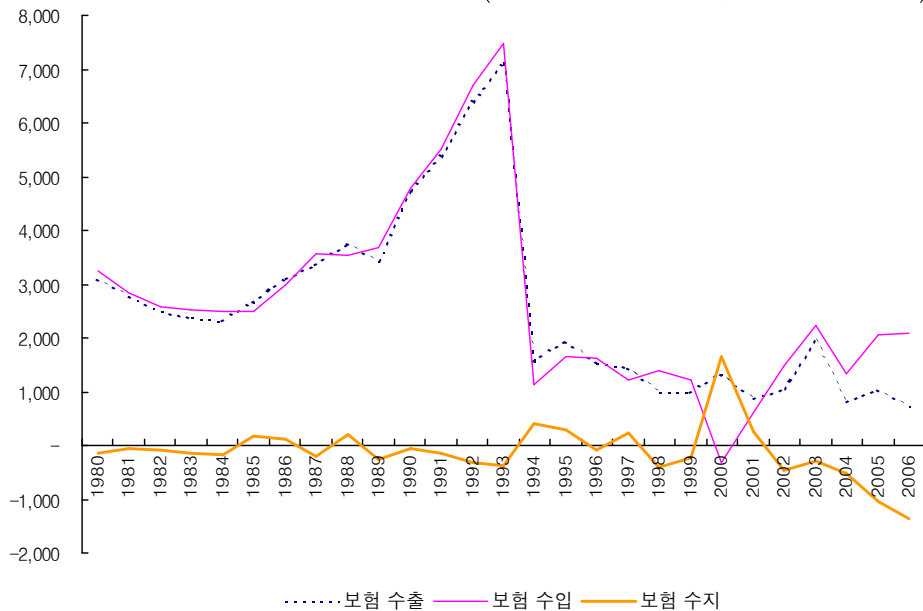
라. 프랑스

1) 보험 수지

프랑스의 보험 수출과 보험수입은 2000년대 들어 격차가 벌어지기 전까지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프랑스의 보험수출과 수입은 1990년대 초반에 규모가 크게 확대되며 1993년에 각각 71억 달러와 7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뒤 1994년에 들어 15억 6천만 달러와 11억 4천만 달러로 급락했다. 2004년부터는 보험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4년 5억 천만 달러였던 보험수지 적자 규모(수출 8억 달러, 수입 13억 2천만 달러)는 2006년 13억 5천만 달러(수출 7억 3천만 달러, 수입 20억 7천만 달러)로 확대됐다.

<그림 III-15> 프랑스의 보험수지 (1980~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I-21> 프랑스의 보험수지 (1980~2006년)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91,445	48,199	87,651	88,270	80,489	92,808	104,763
	수입	67,572	35,096	69,991	69,404	60,691	77,859	95,494
	수지	23,873	13,103	17,660	18,867	19,798	14,949	9,270
보험	수출	3,100	2,669	4,711	1,938	1,326	1,945	726
	(비중)	3.4	5.5	5.4	2.2	1.6	2.1	0.7
	수입	3,234	2,494	4,780	1,648	-331	2,243	2,074
	(비중)	4.8	7.1	6.8	2.4	-0.5	2.9	2.2
	수지	-143	175	-70	290	1,657	-298	-1,348
	(비중)	-0.6	1.3	-0.4	1.5	8.4	-2.0	-14.5
금융 서비스	수출			8,041	2,668	1,265	1,018	1,211
	(비중)			9.2	3	1.6	1.1	1.2
	수입			8,331	2,464	1,452	1,811	3,315
	(비중)			11.9	3.6	2.4	2.3	3.5
	수지			-290	204	-187	-792	-2,105
	(비중)			-1.6	1.1	-0.9	-5.3	-22.7

주 :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2) 자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프랑스의 보험 시장은 앞에서 살펴본 영국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였다. 프랑스 생명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56.4%로, 영국이 43.6%, 독일이 46.5%였던 것에 비해 약 10%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 수치는 1996년에 비해서도 8%p 가량 높아진 것이다.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상위 5개 보험회사 시장점유율도 2006년 54.8%를 기록해 영국의 51.8%, 독일의 44.7%에 비해 다소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이 수치는 1996년 40.4%에 비해서는 14.4%p 증가한 것이다

<표 III-22> 프랑스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단위 : %)

상위 5개 보험회사 기준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6	48.4	40.4
2006	56.4	54.8
상위 10개 보험회사 기준		
1996	69.5	63.0
2006	81.5	72.5
상위 15개 보험회사 기준		
1996	82.6	76.5
2006	92.1	84.1

주 : 시장집중도는 보험료 기준으로 측정되었음.

자료 : CEA(2008)

3)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악사(AXA)는 상당히 높은 국제화 정도를 보였다. 악사의 2007년 TNI는 77.5%였으며, 진출국 수는 2003년 46개국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익, 자산,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국내 비중 및 전체 수익 성장에 미치는 국내 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스위스 시장의 확대에 의해 기타 부문의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증가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가 스위스 생명보험 시장에서 올린 수익은 2006년 1억 4천만 유로(경상가격)에서 2007년 41억 2천만 유로로, 스위스 손해보험 시장에서 거둬들인 수익은 2006년 9,500만 유로에서 2007년 19억 8천만 유로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2006년까지 기여도가 없던 스위스가 2007년 전체 수익 성장률을 8.2%p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산 및 종업원에서 차지하는 스위스의 비중도 2006년과 2007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영국과 아일랜드, 독일, 벨기에를 포함하는 주요 유럽국에서의 수익도 2007년에 전년 대비 26.5% 증가(경상가격 기준)하며 전체 수익 증가율을 6.6%p 견인했다. 주요 유럽국의 수익은 2006년 195억 유

로에서 2007년 247억 유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의 주요 해외시장이었던 미국과 일본의 수익, 자산, 종업원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미국이 약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1.3%에서 2007년 19.1%,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2.9%에서 2007년 17.7%, 전체 종업원에서는 2004년 10.5%에서 2007년 7.2%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2004년 9.2%에서 2007년 6.2%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6%에서 2007년 5.7%, 종업원에서는 2004년 4.9%에서 2007년 4.1%로 각각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체 수익 성장에 미치는 미국과 일본의 기여도도 감소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 증가가 전체 보험회사의 수익 증가율에 미친 기여도는 2006년 1.7%p에서 2007년 0.7%p로 하락했으며, 일본 시장의 수익 증가 기여도는 2005년 -1.2%p, 2006년 0.3%p, 2007년에는 0.0%p였다. 약사의 자산 대비 순이익의 비율은 지역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7년 기준 동 비율은 국내와 미국, 기타 부문에서 0.8%, 주요 유럽 국에서 0.7%, 일본에서 0.6%, 스위스에서 0.5%로 각각 나타났다.

그룹파마(Groupama)의 2007년 TNI는 16.1%였으며, 최근 보험회사 전체 수익 및 자산에서 해외 비중이 증가하며 해외 부문의 수익 성장에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체 수익에서 15.3%를 차지하던 해외 비중은 2007년 18.6%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2007년 국내 부문이 보험회사 전체 수익 성장률에 1.6%p 기여한 반면, 해외 부문은 2.6%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익은 2006년 124억 유로(경상가격)에서 2007년 129억 유로로 증가한 반면, 해외에서의 수익은 2006년 25억 유로에서 2007년 29억 5천만 유로로 증가했다. 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은 해외 부문이 국내 부문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율은 국내 부문에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0.7%와 0.8%로 나타난 반면, 해외 부문에서는 1.4%와 1.2%로 나타났다.

CNP 보험의 2007년 TNI는 9.7%였으며, 이 중 7.0%p가 프랑스 이외 유럽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부문 이외 유럽 부문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0.6%에서 2005년 7.1%로 크게 증가하며 2005년 수익

성장률을 8.5%p 견인하였으나, 이후에는 줄곧 성장기여도가 하락해 2006년에는 1.3%p, 2007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CNP 보험의 지역별 총자산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2007년 기준 프랑스 및 이외 유럽 지역에서 동 비율은 각각 0.6%와 0.7%로 나타난 반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7.2%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동 비율은 2004~2007년간 줄곧 6%대 후반대 이상의 수익성을 보여왔다.

<표 III-23> 프랑스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단위 : %)

보험회사	해외 비중			TNI	진출국수 ³⁾ (2003년)
	수입	자산	종업원		
AXA ¹⁾	76.0	75.3	81.3	77.5	46
Groupama ²⁾	18.6	13.7	-	16.1	11
CNP 보험 ²⁾	(유럽) 7.7	6.3	-	7.0	9.7 5
	(비유럽) 3.8	1.6	-	2.7	

주 : 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부문(국제보험, 자산관리, 은행 부문 제외)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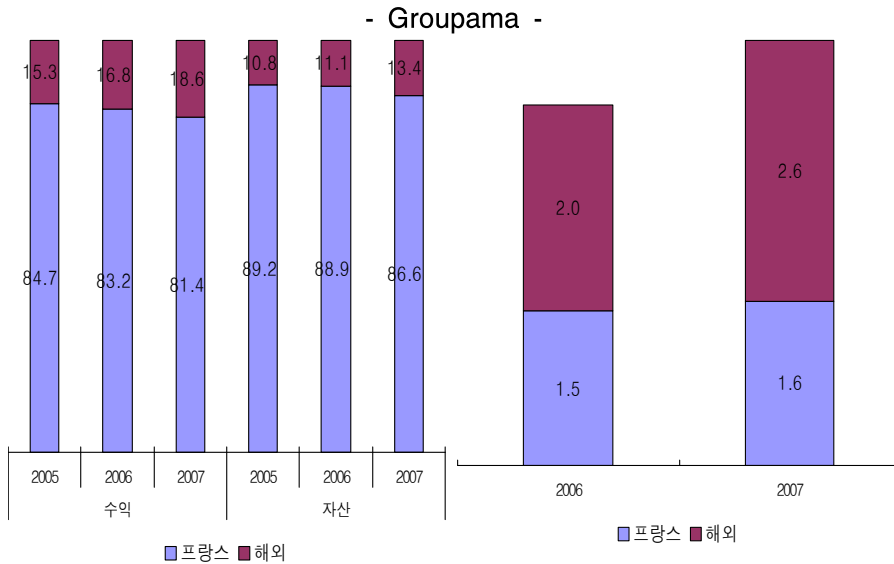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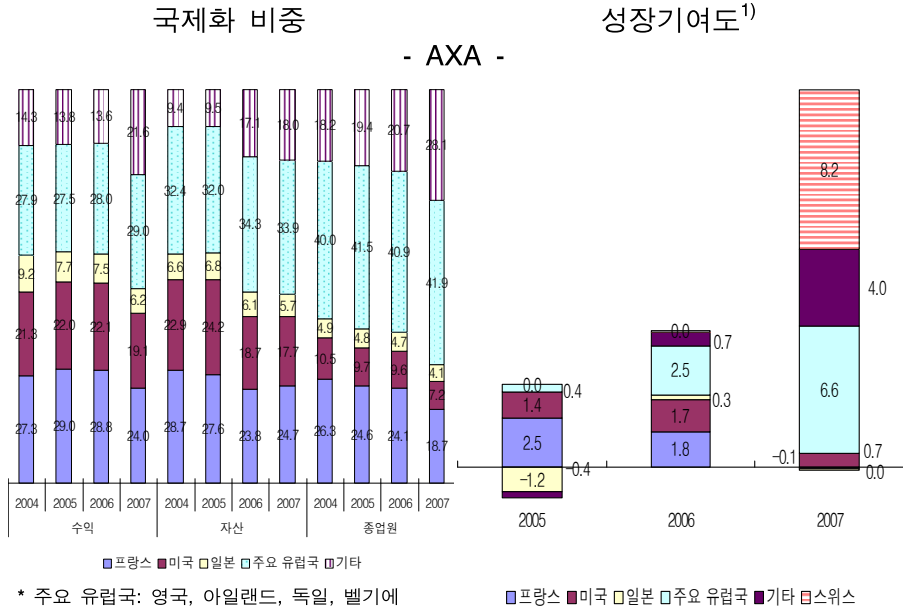
2) 보험회사 전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

3) UNCTAD(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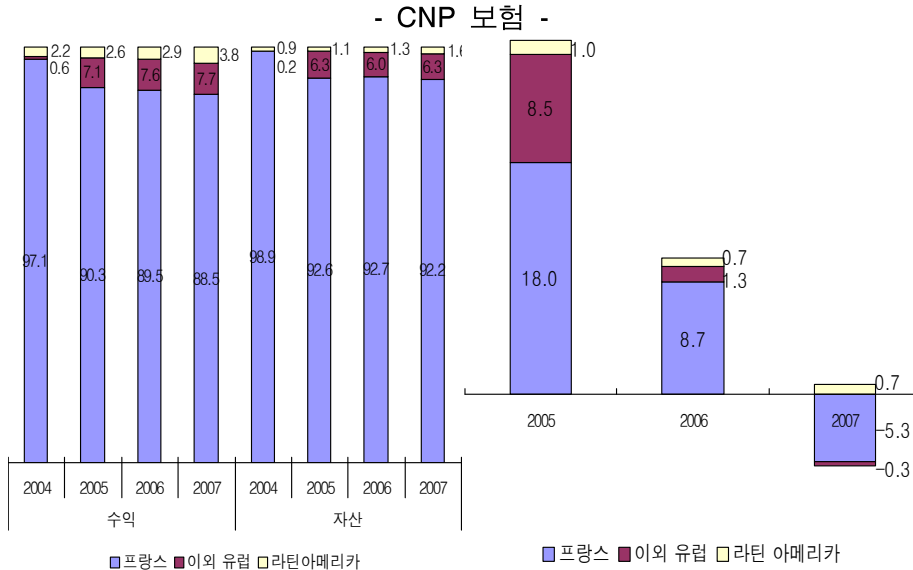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그림 III-16>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 %p)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주 : 1) 성장기여도의 측정 기준은 <표 III-23>의 주식 참조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표 III-24>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4~07년)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AXA ¹⁾	국내	0.7	0.8	0.8	0.8
	미국	0.6	0.7	0.8	0.8
	일본	0.9	1.1	0.6	0.6
	주요 유럽국	0.6	0.7	0.7	0.7
	스위스	-	-	0.0	0.5
	기타	1.3	1.3	0.7	0.8
Groupama ¹⁾	국내	-	-	0.7	0.8
	해외	-	-	1.4	1.2
CNP 보험 ²⁾	국내	0.6	0.6	0.6	0.6
	이외 유럽	2.7	0.7	0.6	0.7
	라틴 아메리카	6.8	6.9	7.8	7.2

주 : 1) 자산 대비 순이익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2) 자산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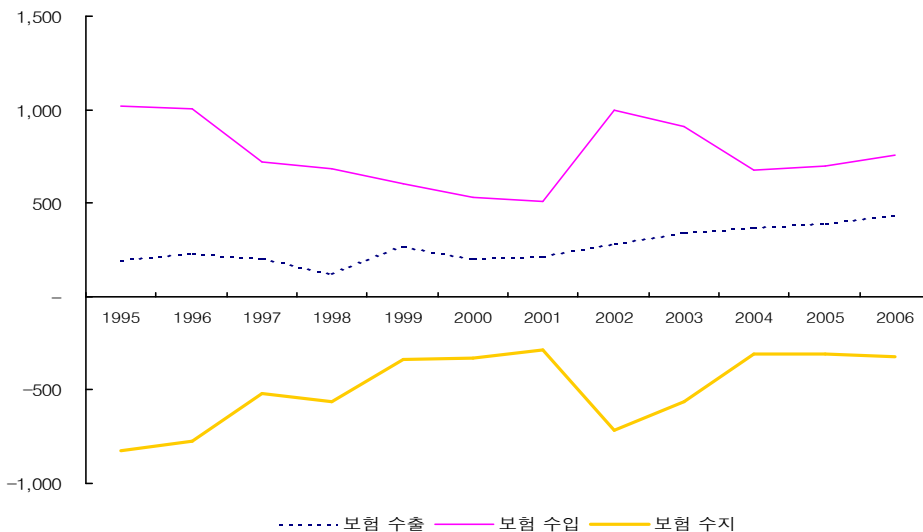
마. 네덜란드

1) 보험 수지

네덜란드의 보험 수지는 1995~200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왔다. 보험 수지 적자폭은 199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1995년 8억 3천만 달러(2000년 기준)에서 2001년에 2억 9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2002년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7억 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험 수출은 1995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2006년 4억 4천만 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수입은 1990년대 후반에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1995년 10억 2천만 달러에서 2001년 5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으나, 2002년에 10억 달러로 증가한 뒤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III-17> 네덜란드의 보험수지 (1995~2006년)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표 III-25> 네덜란드의 보험수지 (1995~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995	2000	2003	2006
서비스 전체	수출	51,561	49,319	56,707	72,235
	수입	50,272	51,339	57,308	67,439
	수지	1,288	-2,021	-601	4,796
보험	수출	192	205	341	438
	(비중*)	0.4	0.4	0.6	0.6
	수입	1,017	534	906	757
	(비중)	2.0	1.0	1.6	1.1
	수지	-826	-329	-565	-319
	(비중)	-64	16	94	-7
금융 서비스	수출	399	735	662	882
	(비중)	0.8	1.5	1.2	1.2
	수입	475	961	795	961
	(비중)	0.9	1.9	1.4	1.4
	수지	-76	-227	-133	-79
	(비중)	-5.9	11.2	22.2	-1.6

주 : 비중은 서비스 전체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2) 자국 보험시장의 집중도

네덜란드 생명보험 시장은 앞서 조사한 다른 주요 시장에 비해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국내 생명보험 시장에서 상위 5개 보험회사의 집중도는 1996년 59.0%에서 2006년 72.2%로 증가했으며,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도 1996년 37.0%에서 2006년 60.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네덜란드 보험시장의 집중도 (1996~2006)

(단위 : %)

상위 5개 보험회사 기준		
	생명보험	손해보험
1996	59.0	37.0
2006	72.2	60.1
상위 10개 보험회사 기준		
1996	78.0	57.0
2006	-	-
상위 15개 보험회사 기준		
1996	87.0	65.0
2006	-	-

주 : 시장집중도는 보험료 기준으로 측정되었음.

자료 : CEA

3) 자국 시장 내 외국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네덜란드 생명보험 시장에서 1990년대까지 30%대를 유지하던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영업보험료 기준)은 2000년대 들어 하락하며 2006년 27.2%를 기록했다. 손해보험 시장에서 1990년대까지 30% 중반대를 유지하던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도 2000년대 들어 크게 하락하며 2006년 20.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외국 보험회사의 네덜란드 시장점유율

(단위 : %)

	1997	1998	1999	2003	2004	2005	2006
Life	34.23	34.31	32.08	22.39	22.98	29.38	27.20
Non-Life	36.63	36.69	35.81	23.08	18.56	18.96	20.21

자료 : OECD

4) 보험회사의 국제화 정도

ING 그룹의 2007년 TNI는 70.0%였으며, 이 가운데 46.4%p가 비유럽 부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익에서 국내 부문의 비중은 2004년 24.3%에서 2007년 20.7%로 감소하였으나, 전체 자산에서 국내 부문의 비중은 동 기간 22.3%에서 3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NG 그룹의 전체 수익 성장에 미친 국내 부문의 기여도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0.6%p, -1.1%p로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문의 자산 대비 세전순이익의 비율도 2004년 1.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7년 0.3%를 기록했다. 전체 자산에서 네덜란드 이외 유럽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5.0%에서 2007년 31.4%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체 수익에서 동 부문의 비중은 2004년 15.1%에서 15.7%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이외 유럽 부문의 수익 성장 기여도는 2005년 0.4%p에서 2006년에는 0.9%p 증가하였으며, 자산 대비 세전순이익 비율도 2004년 0.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7년에 0.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부문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3.1%에서 2007년 18.2%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자산에서의 비중은 2004년 5.1%에서 2007년 5.2%로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부문은 2005년 전체 그룹의 수익 성장률을 5.6%p 견인하였으나, 2006년에는 -0.1%p, 2007년에는 1.1%p 기여해 기여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자산 대비 세전순이익 비율은 2006년에 0.8%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0.6%로 나타났다.

Aegon의 2007년 TNI는 81.1%였으며, 이 중 48.3%p가 아메리카 지역, 25.2%p가 영국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7년 동안 전체 수익과 종업원에서 국내 부문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자산은 2005년 하락한 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수익 성장에 대한 국내 부문의 기여도는 2005년 0.3%p, 2006년 -0.8%p, 2007년 0.7%p로 다른 부문에 비해 기여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7년간 아메리카의 비중은 전체 수익, 자산, 종업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아메리카 지역의 수익 성장기여도는 2005년 0.5%p에서 2006년 4.1%p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7년에

는 -0.8%p로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7년간 아메리카 부문의 자산 대비 세전영업이익 비율은 1.1~1.3%로, 전체 보험회사 평균에 비해 꾸준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익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4.8%에서 2007년 34.9%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6~07년에는 보험회사 전체 수익성장률의 대부분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수익 성장기여도는 각각 2005년에 0.6%p, 2006년에 13.8%p, 2007년에 4.3%p였다.

<표 III-28> 네덜란드 주요 국제적 보험회사의 TNI (2007년)

(단위 : %)

보험회사	해외 비중			TNI		진출국수 ²⁾ (2003년)
	수입	자산	종업원			
ING ¹⁾	(유럽) 15.7	31.4	-	23.5	70.0	58
	(비유럽) 63.6	29.2	-	46.4		
Aegon ¹⁾	(아메리카) 41.7	53.0	50.2	48.3	81.1	12
	(영국) 34.9	24.2	16.5	25.2		
	(기타) 7.1	2.9	12.8	7.6		

주 : 1) 보험회사 전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였음.

2) UNCTAD(2007)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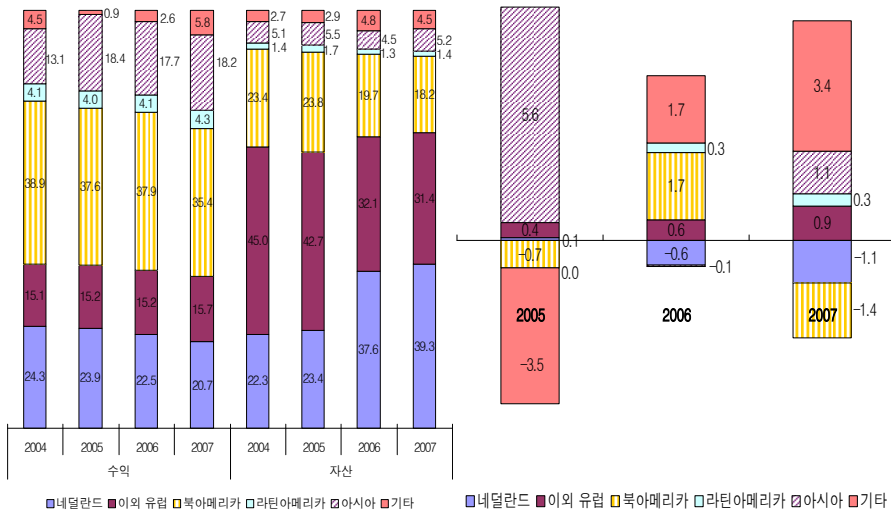
<그림 III-18> 국제화 비중 및 성장기여도의 추이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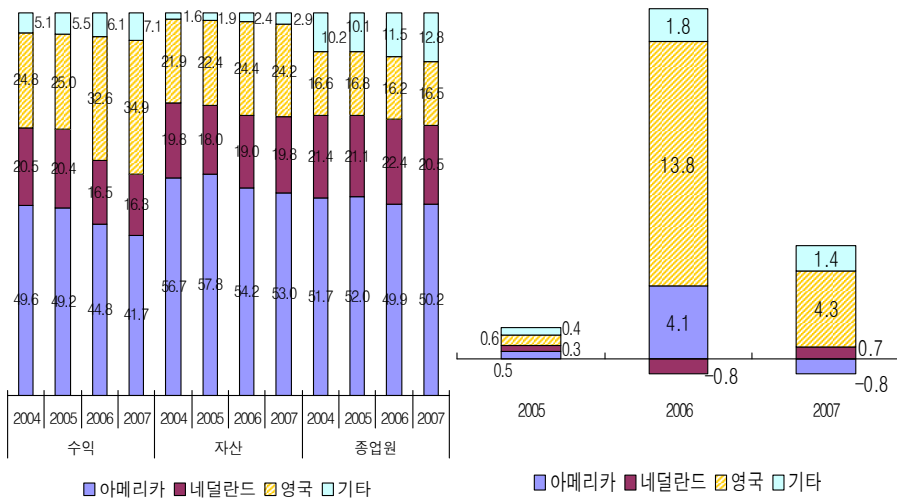
국제화 비중

성장기여도¹⁾

- ING -



- Aegon -



주 : 1) 성장기여도의 측정 기준은 <표 III-28>의 주식 참조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표 III-29> 국제 부문의 수익성 (2004~07년)

(단위 : %)

		2004	2005	2006	2007
ING ¹⁾	네덜란드	1.5	1.3	0.6	0.3
	이외 유럽	0.3	0.5	0.6	0.7
	북아메리카	0.8	0.9	0.7	0.7
	라틴아메리카	1.9	0.9	1.5	2.2
	아시아	0.6	0.6	0.8	0.6
	기타	5.4	-0.4	0.3	2.5
	합계	0.9	0.8	0.6	0.6
Aegon ²⁾	네덜란드	0.4	-0.9	1.9	0.6
	아메리카	1.1	1.1	1.3	1.3
	영국	0.3	0.2	0.3	0.4
	기타	2.7	1.0	0.8	1.5
	합계	0.8	0.5	1.1	0.9

주 : 1) 자산 대비 세전순이익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2) 자산 대비 세전영업이익의 비율로 산출하였음.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Datamonitor

2. 정책 지원

가. 미국

1) 국제보험관계위원회 (International Insurance Relations Committee)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금융시장 글로벌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보험관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국제보험관계위원회는 글로벌 표준 규제 수립, 무역협정, 개발도상국에의 기술 지원 등 미국의 규제 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미국 보험회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NAIC-EU규제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표 III-30> NAIC 국제보험관계 위원회의 주요 활동

표준 수립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의 주요 국제금융규제기구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기술적 지식 제공	금융정책 수립 시나 NAFTA, GATS 등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에 보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
감독기구의 교육	중국, 베트남, 브라질, 이라크, 러시아, 홍콩, 한국, 라틴아메리카 보험감독협회(ASSAL)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경제 개발	NAIC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개도국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의 기업 및 보험 소비자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NAIC는 전문적 지식을 개도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 보험 당국이 안정되고 투명한 보험시장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국제 협력	1999년부터 미국, 유럽간 국제적 보험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의 해결을 위해 NAIC-EU 규제 회담(Regulatory Dialogues)을 연 2회 개최하고 있음.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라틴 아메리카와도 이와 유사한 회담을 갖고 있음

자료 : NAIC 홈페이지

2) 미국-EU 간 ‘범대서양 경제위원회’ 회의

범대서양 경제위원회(TEC: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는 2007년 미-EU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범대서양 경제 통합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Framework)」에 합의함으로써 수립되었다. 동 기본 계획에서 미 정부와 유럽위원회는 양측 관할지역에서 2009년까지 미국회계기준(GAAP)과 국제회계기준(IFRS)을 모두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2008년 5월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조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의 개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위원회(TEC)는 미국과 EU에 보험회사들을 위한 진정한 공정 경쟁의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양측의 관련당국에 2008년 말까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안으로 미국이 EU의 재보험회사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당 규정의 개정 및 유럽 위원회의 Solvency II 프레임워크 지침에서

제3국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보험 대화(Insurance Dialogue)

미국은 EU와 2002년부터 금융시장 규제 대화(FMRD, Financial Markets Regulatory Dialogue) 내의 보험 대화(Insurance Dialogue)를 통해서도 보험 시장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공통의 중요 문제들을 다뤄오고 있다.

또한 일본과도 1년에 한 번 보험 대화(US-Japan Insurance Dialogue)를 열어 양국간 보험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 양자회의는 2007년 12월 2일,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주도로 동경에서 열렸다. 동 회담 기간에 미 NAIC 대표는 제일 미국상공회의소(ACCJ)의 대표들과 만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회담에서 일본 측에 우정국(우체국보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현행 주 기준(state-based) 규제 체계의 조화 및 단일화 노력 대신 연방 규제체계로의 이행 및 재보험 저당 규정의 폐지를 건의했다.

4) 미국-일본 프레임워크 회담 (US-Japan Framework Talks)

1993년 7월에 발족된 동 회담은 양국간의 경제적 이슈를 처리하는 주요 매커니즘으로 기능해 왔다. 1993~1997년에 진행된 회담의 주요 목적은 정부 구매, 보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부문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보험 회담(Insurance Talks)이 1995년 12월에 시작돼 1996년 12월 15일에 완료되었다. 보험 회담의 주요 결과로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 계획과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 허용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원수보험 부문의 규제 완화에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부문의 직접응답제도(direct response system) 신청 허가, 상업화재보험의 부가보험료 권고요율제도의 범위 확대(계약당 최저액 인하), 보험시장의 혁신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보험요율 산정 제도의 근본적 개혁(요율산정기관의 회원사가 동 기관의 요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한편, 요율 산정을 위해 동 기관에 의해 수집된 통계 자료는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자동차 보험 부문의 보험료, 상품 종류 및 판매채널 차별화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1997년 1월 1일부터 자회사를 통한 제3부문으로의 진입이 허용됨에 따라 손해보험 자회사를 통한 생명보험회사의 개인상해보험 판매와 생명보험 자회사를 통한 손해보험회사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기존 중소형 및 외국계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회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범위가 제한되는 등의 조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일례로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에서 단일 암보험, 단일 의료보험 상품 등의 일부 상품이 제외된 것 등을 볼 수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러한 제한 규정들의 종료 기준을 명시하고, 2001년까지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임을 함께 밝혔다.

나. EU

유럽 보험위원회(CEA)는 국제업무(International Affairs) 부문의 주요 목표로 유럽 이외 주요 해외 시장에서 유럽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에 대한 장벽 제거, 보험 부문에서 자유 무역 촉진, 전 세계적인 공정경쟁의 장 실현 등을 들고 있다.

1) 미국

가) 저당(collateral) 규정 제거

CEA는 해외 재보험회사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 저당 규정의 제거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 규제체계¹³⁾에서 해외 기반 수재보험회사¹⁴⁾에 출재

13) NAIC의 재보험 크레디트에 관한 모델법(Credit for Reinsurance Model Law, Model #785). NAIC의 전 회원 관할지역에서 채택되었다.

14) 모델법에서는 제2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제2조는 (a) 출재보험회사 소재지 주에서 면허를 받은 자, (b) 출재보험회사 소재지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았으나 출재보험회사 소재지 주에서 재보험자로 인정을 받은 자, (c) 출재보험회사 소재지 주와 상당히 유사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 소재해 있는 자(외국사 지점 포함)로 2천만 달러 이상의 보험계약자잉여금을 보유하고, 출재보험회사 소재지 주의 보험당국으로부터 장부, 서류에 대해 감독을 받을 것을 확약한 자, (d) 수탁자격이 있는 미국 금융기관에 신탁기금을 위탁하고 있는 자로, 매년 보험감독관이 신탁기금의 충분성을 결

하는 국내 보험회사가 재보험 크레딧(동 출재분을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부채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재보험회사가 미국 채무의 100%에 해당하는 저당(collateral)을 미국 내 설정해야 하는 반면,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재보험회사들은 동 저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CEA는 본 규정이 해외 재보험회사들의 경쟁열위를 조장해 왔으며, 본 규정으로 인해 유럽 재보험 회사들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 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해 왔다.

CEA는 미 NAIC가 최근 ‘통관항(POE: Port of Entry)’의 개념과 재보험 감독 검토 부서(RSRD: Reinsurance Supervision Review Department)의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고 평가되므로, 미국과 외국 보험회사 간의 불공정 대우 문제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EU (재)보험회사들의 공정한 처우를 위해 NAIC, 전미보험입법자회의(NCOIL: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ors), 개별 주(state)의 당국과 민간 보험회사 등 핵심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NAIC는 최근 채택한¹⁵⁾ 재보험 규정 현대화 안(reinsurance regulatory modernization framework proposal)¹⁶⁾에서 ① 미국 내 재보험과 관련하여 새로운 두 부류(미국 기반의 전국적 사업자와 해외 기반의 POE)의 창출, ② 기존 저당 규정의 개정안, ③ 감독 인정(supervisory recognition) 개념에 기반한 새로운 규제 체계 및 ④ NAIC 재보험 감독 검토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상호 인정 체계(Mutual Recognition Framework)는 다른 관할권의 규제·감독의 질(quality)을 인정하는 것으로 재보험회사들의 추가적 규제·감독에 대한 부담을 제거 또는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RSRD는 한 개 주가 주 간 경계를 초월하여 재보험 부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상호 인정에 적합한 비 미국(non-U.S.) 관할권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출하고, 장부, 서류에 대해 감독을 받은 자, (e) c항 및 d항의 경우라 할지라도 수재보험자가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미국 관할법원(또는 상소법원)의 최종판정에 따를 것과 보험감독관(또는 그 지명자)을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출재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소송절차사항을 대리 수행한다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재보험크레딧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5) NAIC News, Reinsurance Reform Moves Ahead, 2008.12.7

16) 본 안은 개념을 제안한 수준으로 향후 구체화를 위한 세부 작업 및 적절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미국 및 해외 재보험회사들은 단일주(single-state) 규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제체계 하에서 기존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미국 소재지 주(home state)에서 NAIC의 단일 최소 기준에 기반해 면허를 취득한 '전국적 재보험회사(national reinsurer)'는 해당 주의 관련 당국 감독만을 받으면서 개정된 모델법을 채택한 다른 모든 주에서 재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크레디트 인정이 되는 재보험을 팔 수 있도록 통관항 주(POE state)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해외 기반의 POE 재보험회사도 통관항이 있는 한 개 주의 감독만을 받게 된다. 단, POE 재보험회사로서의 인가는 해당 재보험회사가 RSRD가 상호인정에 적합하다고 권고한 관할권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POE 또는 소재지 주(home state)는 필요한 저당 수준의 책정을 위해 재보험회사의 등급(Secure-1, Secure-2, Secure-3, Secure-4, Vulnerable-5 중 하나)을 정하게 된다. 미국의 재보험회사는 Secure-4 이하부터 저당이 요구된다. 등급은 RSRD의 가이드라인과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 정한 재보험회사의 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된다.

등급	저당 요구 수준
Secure-1	0%
Secure-2	10%
Secure-3	20%
Secure-4	75%
Vulnerable-5	100%

나) 주 기반(state level)의 규제 체계

현재 미국의 보험 산업은 주 단위로 규제되고 있어 금융시장 규제 회담 시 EU측에 상응하는 미국정부 대표가 부재하는 문제가 있으며, 미국 내 단일 면허 체계의 부재로 재보험 및 국제상품무역 보험의 자유화가 장애를 겪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EU는 이미 원수보험 및 재보험에 대한 단일 면허 원칙을 수립했다. 따라서 CEA는 최근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가

연방 차원의 보험 산업 규제를 위해 제안한 보험감독체제 개편 방안¹⁷⁾이 미국의 민간 부문뿐 아니라 유럽의 산업에도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미국의 보험·재보험 부문과 협력하여 동 연방감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미 재무부는 2008년 3월 31일 발표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에서 현행 은행부문의 이중감독체제(dual-chartering system)와 유사한 연방 보험규제 체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연방 보험규제 체제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재무부 내에 신설될 연방보험국(ONI: Office of National Insurance)에서 공포하게 될 선택적 연방감독제도(OFC: Optional Federal Charter)에 따라 연방 차원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주(state) 단위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재무부는 보험 상품의 지속적인 진화 및 혁신을 지원하고 보험 시장의 글로벌화 및 융합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보험규제의 근본적 개혁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본 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도 개별 주(state)의 규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규제순응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은행의 보험업 침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지적해왔다. 보험업계가 최근 지지하고 있는 한 연구(129개 보험회사를 조사)¹⁸⁾ 결과에 따르면, 현행 규제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기업당 평균 270만 달러(보험소비자 1,000명당 3,55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원칙 개발 지원

CEA는 상호인정 원칙의 개발과 관련된 IAIS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IAIS는 2008년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서 상호인정에 관한 프로젝트를 최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최근 그룹 차원의 감독(group-wide supervision)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완성한 상태이다. 상호인정은 위험이 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며 규제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축소함으로써 보험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7) 금융감독체제 개편안(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2008.3.31

18) University of Massachusetts Isenberg School of Management, Consumer Ramifications of an Optional Federal Charter for Life Insurers (2004)

2) 중국

CEA는 중국을 글로벌화와 관련된 최대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CEA는 2006년 보고서¹⁹⁾를 통해 중국의 보험 시장이 최근 두 자리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제합작투자 수익률은 이러한 발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EA는 기본 전략으로서 WTO 또는 양자간 FTA 협정을 통해 중국의 무역 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보험감독기구(IAIS) 및 EU와 중국간 규제 회담을 통해 규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CEA는 WTO를 통해 금융 서비스의 규제와 감독에 있어 국제적 선진관행(best practice)을 준수하도록 중국에 권고하고, 중국이 WTO 가입 후 합의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EA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외국인의 보험 부문 투자를 허용하는 등 중요한 개혁에 착수해 왔으나 중국 시장의 장벽은 아직까지도 높다고 인식한다. 즉, 외국 보험회사들이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규정 도입 시 협의(consultation) 절차가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 등 중국이 WTO 가입 시 합의한 협약도 제대로 준수하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CEA는 중국과 서비스 부문에서 강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음으로써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 보험회사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CEA는 금융서비스 및 규제에 관한 EU-중국간 현행 라운드테이블(EU-China Roundtable on Financial Services and Regulation)의 강화를 대중국 전략에서 최우선과제로 여기고 있다. 현재 이 라운드 테이블은 2008년 8월 3차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 및 국제적 선진관행의 수립에 있어 IAIS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EU 감독당국 및 보험회사들의 IAIS 참여를 통해 중국 보험감독위원회(CIRC: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 CEA, Position Paper on a Strategy for the Trade &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China, 2006.7.25

3. 시사점

가. 글로벌화 현황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수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보험 시장의 규모에 비해 수출입 측면에서의 글로벌화가 다른 비교대상국들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의 원수수입보험료 합계에 대해 2006년 보험 수출입 규모(보험수출과 보험수입의 합계)의 비율을 구해 비교한 결과 한국과 프랑스가 각각 1.3%로 비교대상국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외 국가들은 모두 2%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며 미국이 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III-31> 보험수출입 규모 비교 (2006년)

(2000년 기준 실질가격, 단위 : 백만USD, %)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보험시장규모 ¹⁾	90,704	1,003,800	358,517	222,090	192,701	53,548
수출	328	7,958	5,490	726	3,056	438
수입	815	28,809	1,514	2,074	2,252	757
수출입규모 ²⁾	1,142	36,767	7,005	2,799	5,308	1,194
비율 ³⁾	1.3	3.7	2.0	1.3	2.8	2.2

주 : 1) 2006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부문의 원수수입보험료 합계

2) 보험수출과 보험수입의 합계

3) 보험시장규모에 대한 수출입규모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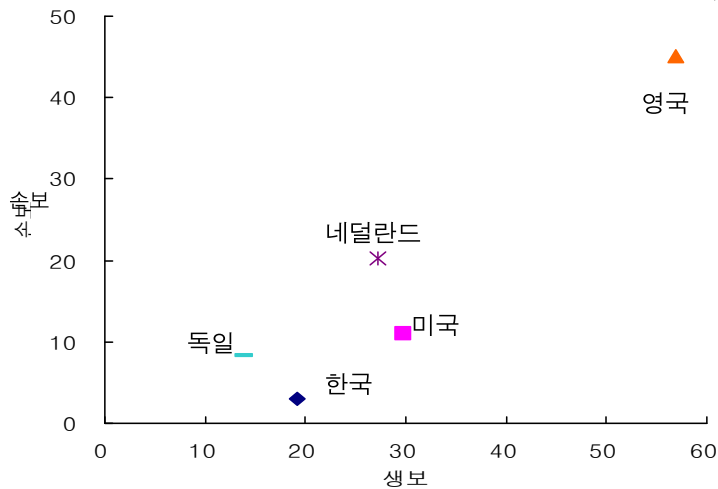
자료 :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7*,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Swiss Re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통해 글로벌화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한국은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낮은 글로벌화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06년 우리나라 손해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2.98%로 다른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다음으로 손해보험 부문에서 낮은 외국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을 보인 국가는 독일로 동 점유율이 8.42%로 나타났다. 2006

년 우리나라 생명보험 시장에서 외국 보험회사의 점유율은 19.15%로 독일 (13.74%)보다는 높았으나 여전히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9>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시장 점유율 비교 (2006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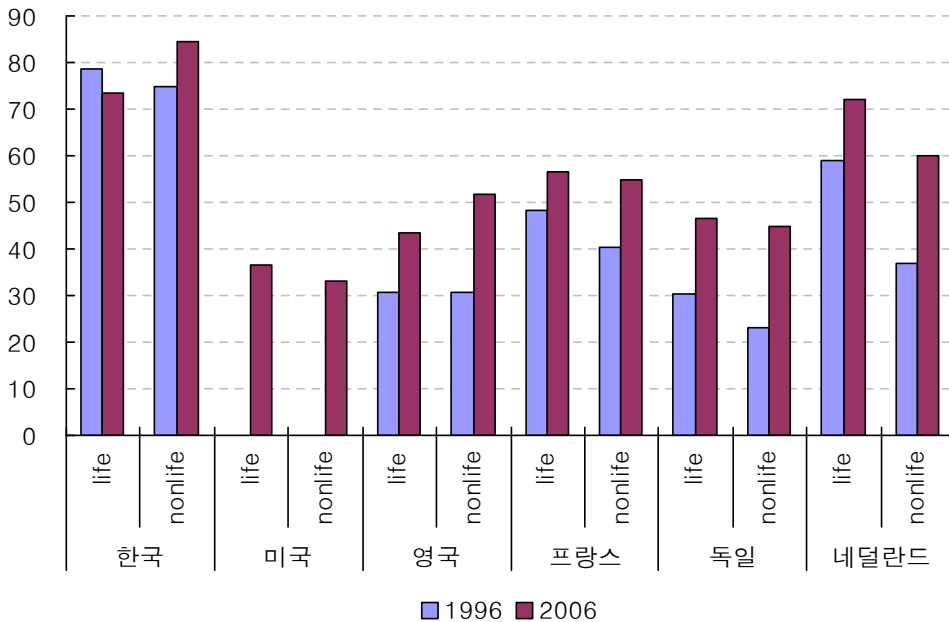
자료 : OECD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높은 시장집중도는 외국 보험회사의 해당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다루어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위 5대 보험회사의 비중으로 각 시장의 집중도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나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시장에서 모두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상위 5대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할 때 2006년에 각각 73.3%와 84.5%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네덜란드가 양 보험시장에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네덜란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의 집중도는 2006년 각각 72.2%와 60.1%였다. 양 시장에서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인 국가는 미국으로 2006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집중도는 각각 36.5%와 33.1%였다. 1996~2006년간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 집중도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시장 집중도가 1996년 78.7%에서 2006년 73.3%로 -5.4%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집중도의 증가는 생명보험시장보다는 손해보험시장에서 큰 폭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의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동 기간 20%p 이상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시장집중도와 외국보험회사의 진출 정도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위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6년도 각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와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통해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생명보험부문에서는 -0.3589, 손해보험부문에서는 -0.2077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그림 III-20> 주요국 보험시장의 시장집중도1) 비교 (1996~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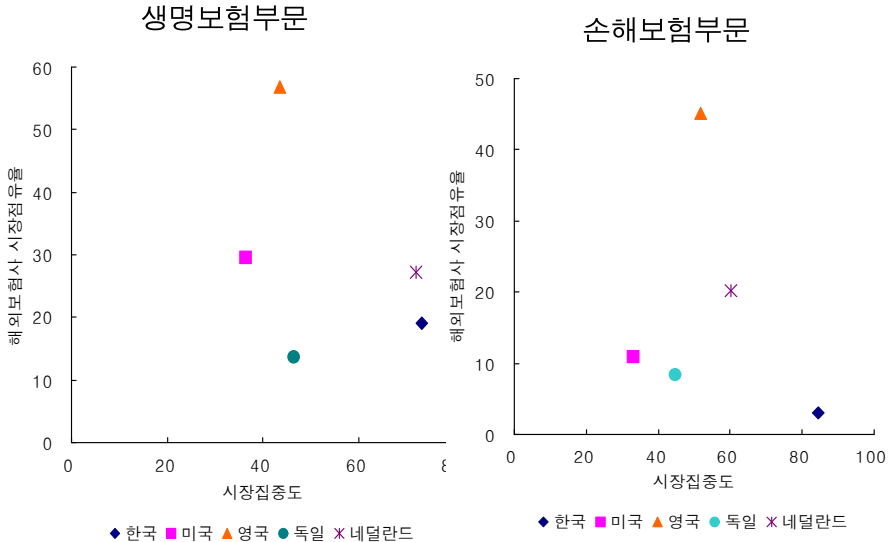
(단위 : %)



주 : 1) 상위5개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자료 : CEA,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미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그림 III-21> 시장집중도와 외국 보험회사 시장점유율의 관계 (2006년)

(단위 : %)



주 : 상관계수는 생명보험부문에서 -0.3589, 손해보험부문에서 -0.2077로 나타났다.
 자료 : CEA, 금감원 금융통계정보, 미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OECD

마지막으로 각국의 주요 다국적 보험회사의 TNI 지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글로벌화 수준과 비교하였다. 2장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이 아직은 대부분이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NI 지수는 UNCTAD(2007)에서 상위 30개 다국적기업(TNC)으로 선정된 보험회사들 중 본 연구의 5개 해외조사대상국에 속한 21개 보험회사에 대해 구했다. 이들 21개 보험회사의 해외수입비중을 살펴본 결과²⁰⁾, 9개 보험회사에서 동

20) 앞서 TNI 지수는 수입, 자산, 종업원에서의 해외부문 비중을 단순평균해 구하였으나, 수입, 자산, 종업원 수 중 지역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항목이 보험회사마다 상이했던 관계로 여기서는 보험회사들 간 비교를 위해 수입에서의 해외비중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수입에서의 해외비중도 기준이 수익, 수입보험료 등 보험회사마다 상이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비중이 5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 9개 보험회사들은 모두 유럽 보험회사로 독일 재보험회사 2곳과 Aegon(83.7%), ING(79.3%), AXA(76.0%), Allianz (손해보험 73.1%, 생명보험 66.5%), Aviva(61.9%) 등이 포함됐다. 미국 보험회사 가운데 가장 높은 해외수입비중을 보인 보험회사는 AIG로 동 비중은 49.4%였다. AIG는 92개국에 진출해 해외진출국 수 측면에서는 전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높은 글로벌화 정도를 보였다. AIG 다음으로는 영국의 RSA가 80개국, 독일의 Allianz가 62개국으로 높은 순을 보였다.

TNI 지수와 함께 각 보험회사의 국내부문 및 해외부문의 수입²¹⁾ 성장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부문이 수입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AIG, Aviva, Allianz, AXA, ING, Munich Re 등 상위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국내부문 성장기여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2007년에는 국내 기여도 부문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2> 보험회사별 글로벌화 비교 (2006년)

(단위 : %)

순위	해외수입비중	국적	진출국 수	국적
1	Aegon (83.7)	네덜란드	AIG (92)	미국
2	Hannover Re (83.2)	독일	RSA (80)	영국
3	ING (79.3)	네덜란드	Allianz (62)	독일
4	AXA (76.0)	프랑스	ING (58)	네덜란드
5	Allianz - P/C (73.1)	독일	AXA (46)	프랑스
6	Allianz - L/H (66.5)	독일	Munich Re (36)	독일
7	Aviva (61.9)	영국	Aviva (32)	영국
8	Munich Re (58.1)	독일	Hannover Re (22)	독일
9	RSA (53.8)	영국	Berkshire Hathaway (21)	미국
10	AIG (49.4)	미국	Ergo (21)	독일

자료 : 각 보험회사의 연차보고서, UNCTAD (2007)

21) TNI 측정 때와 같이 보험회사별로 수입 기준이 수익, 수입보험료 등으로 상이하였다.

나. 정책 지원

보험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적 접근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동 부문의 글로벌화 관련 이슈를 전담하는 상설기구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보험감독자협의회(NAIC) 내 국제보험관계 위원회에서, 유럽에서는 보험위원회(CEA)의 국제업무 분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 기구들은 해당 보험산업이 해외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의 파악 및 해소, 자유무역의 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EU는 모두 외국과의 규제차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미국과 EU는 모두 주요 해외시장의 감독당국과 정기적인 회담을 열고 있었으며, 관련 국제기구에서 표준 규제 수립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외에도 여러 외국의 감독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활용하고 있었다. 유럽 보험위원회는 중국시장에서 유럽 보험회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 FTA와 같은 보다 큰 틀에서의 효과적인 경제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IV.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그 동안 정부는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제약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당장 완화해야 할 국내 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출 현지국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제2장의 글로벌화 현황 및 제3장의 사례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의 정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경험, 해외재보험 수지차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체계화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제적으로 정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그러한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의 국제적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내 보험부문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

1. 국제적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분야

일반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거래에 대한 기술적 장벽과 함께 정책·제도적 장벽이 꼽힌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통신기술의 혁명과 물류혁명 덕분에 기술적 장벽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보험업의 특성상 물리적 이동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정책·제도적 장벽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진입, 지배구조, 철수 조건 등이 직접적으로 중요하며, 영업을 위한 상품개발, 모집제도,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간접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선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입 시 해외보험사에 대한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인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는가 이다. 법규 등에서는 명시적인 차별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나 진입 심사 과정 등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진입 조건에는 대개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 대한 조건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규제는 대개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시적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지국에 진입할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추진 중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철수와 관련한 규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철수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철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할 수도 있고, 진출 보험회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유화 또는 몰수 등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국가 리스크(country risk)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들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이상이 직접적 진입 또는 퇴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해외 보험회사가 불리할 수 있는 분야가 상품개발 및 요율 제도, 모집제도, 자산운용 등의 분야이다. 이들 분야의 규제가 엄격하거나 국제적 수준에 비해 선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선진화된 보험기법을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입 및 퇴출 분야 규제 이외에 영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투자대상국과의 정책적 협력은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해당국의 제도가 외국 보험회사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면 현실적으로 영업을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경우 현지국 규제는 당해국 보험회사의 이해를 더 반영하지 해외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주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진출 시 해당국에 대한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일반적 정보는 물론 보험규제에 대한 명시적 및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정보, 진출 경험 등을 공유하는 것은 후발로 진출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적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데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2.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강화

일반적으로 투자대상 현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은 국제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국제기구에 참여한 선진국이 주도하는 기준을 당사국이 직간접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쌍무협정에 비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²²⁾ 과거에는 WTO와 같은 일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합의 도출 실패, FT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일반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OECD와 IAIS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²³⁾ 이하에서는 이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가. 일반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보험이 속한 금융 분야에 대한 서비스 협상에 구속력 있는 일반 국제기구로는 대표적으로 WTO를 꼽을 수 있다. WTO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역할해온 GATT를 발전시켜 1995년에 설립되었다. WTO는 설립과 함께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정인 GATS (General Agreement for Trade in Services)를 발효시켰다. GATS는 서비스교역과 서비스 부문 투

22) 물론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장점만 존재한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23) 보험 이외에 전체 경제 차원에서 보험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GATS/DDA를 주도해온 WTO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무역 및 서비스 분야에서 다자간협상의 유용성이 낮아지면서 WTO가 갖는 위상도 같이 낮아졌다.

자에 관련된 최초의 법적 강제성을 지닌 다자간 협정으로서 의의를 갖는다.²⁴⁾ 1997년에는 GATS의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을 마무리 지었다.²⁵⁾ 이를 통해 다수의 WTO회원국들은 보험, 은행업, 증권업 등의 분야를 양허했으나, 보험중개업, 자산관리, 금융정보제공업, 파생상품거래서비스 등은 양허를 유보한 경우가 많으며, 공급형태는 주로 Mode3 위주이며 Mode1, 2의 양허 수준은 낮은 편이다.²⁶⁾

그 후 2001년에는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범하면서 서비스협상은 DDA협상 의제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협상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민감 분야에 대한 양허요청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로 의미 있는 시장개방을 도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²⁷⁾ 이에 각국은 2005년도에는 양자 R/O방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보완적 협력방식 마련에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 등 20여 개 분야에서 복수적 R/O 협상이 전개되어 요청국과 요청대상국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⁸⁾

우리나라는 보험이 포함된 금융 분야의 경우 2008년말 현재 1) 미양허된 Mode1, 2, 3의 개방수준 확대, 2) MFN(Most Favored Nation) 삭제 등이 쟁점이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 분야의 경우 보험중개 및 대리업, 재보험, 해상운송 및 에너지 보험 등의 분야에서 Mode1, 2의 자유화가 논의되고 있다. 또한 Mode1, 2, 3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시장접근 등과 관련된 제한을 없애고, 법 개정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 등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²⁹⁾

24) GATS는 네 가지 유형의 Mode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Mode1은 국경간 공급, Mode2는 해외소비, 즉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Mode3은 자회사, 지점, 대리점, 또는 대표부 등 해외 상업적 주재(presence), Mode4는 자연인의 주재이다.

25) GATS 금융서비스 부속서(ANNEX)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크게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와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로 분류한다.

26) 서진교 외(2007), p. 93.

27)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각국간 요청서(Request)와 양허안(Offer) 교환을 통해 협상이 진행된다.

28) 서진교 외(2007), p. 10.

29) 서진교 외(2007), pp. 93~94.

<표 IV-1> 주요 회원국의 보험 및 관련 서비스 양허현황과 개선내용

국명	기존 양허의 주요 내용	DDA 개선내용
호주	- 비거주민에 대한 생명보험은 자회사만 허용 - 외국생명보험회사 임원의 호주 거주민 요건,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의 호주 거주민 고용 의무조건, 근로보상금 등에 대한 주정부의 권한 명시	- 외국 생명보험회사 사장의 호주 거주민 요건 삭제 - Incorporated가 아닌 외국 생명보험회사의 호주 거주민 고용 의무조건 삭제
캐나다	- Mode1은 몇 개 주에서 상업적 주재를 통해서만 공급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허 - Mode2는 재보험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양허 - Mode3는 예외적인 주를 제외하고 양허	- 자동차보험 Mode3에서 퀘벡주의 독점대상 범위 축소 - 온타리오 주의 보험중개업 Mode3 요건 완화
미국	- 국유 보험회사의 앨라바마 등 나열된 주에서의 Mode1, 3 형태의 공급 불가 - Mode2는 양허 -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몇몇 주에서 보험브로커 자격 등 제한	- 원보험의 Mode1, 3 형태의 공급을 양허하지 않았던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양허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보험 브로커 자격증 등을 제한했던 아칸소 등 몇몇 주에서 Mode1, 3 양허
EC	- 벨기에, 영국 등 6개국 Mode1 양허 - 오스트리아 등 항공보험의 Mode3만 제한적 양허 - 벨기에 등 9개국 Mode2 양허 - 덴마크 등 6개국 Mode3 양허 - 3개국 부분적 양허	- 체코 등 3개국 Mode1, 2 양허 추가 - 부분적으로 양허했던 3개국 양허
일본	- 자동차보험의 재보험 관련 제한	- 자동차보험의 재보험 관련 제한 삭제
한국	- Mode1, 2 미양허 - Mode3 합작회사 설립, 전문가 모집과 고용 제한	- 보상회사(adjustment company)의 Mode3 양허 추가

자료 : 서진교 외(2007), pp. 95~96에서 정리.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GATS나 그에 이은 DDA협상과 같은 다자간협정은 협상과정이 지난하게 길고 그 과정에서 변수가 많은 단점이 있다. 또한 상호간에 호혜적이면서 다른 여러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개별 국가의 힘으로는 어려운 개방화 요구를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 유망성장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험시장의 개방 정도가 높기 때문에 다자간협상의 주요한 무대인 DDA를 활용하여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자체의 힘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여 국제적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야기될 수 있는 양국간 마찰을 피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DDA를 통해 확인된 규제를 기준으로 그 국가에 진출할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국가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보험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

IAIS나 OECD와 같은 보험 관련 국제기구는 보험규제의 국제기준을 제정하여 회원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미 1997년에 IAIS에 참여한 102개국은 진입장벽 제거와 시장개방을 약속하는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약을 맺었다. 따라서 IAIS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출하려는 현지국의 진입규제 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IAIS나 OECD를 통한 방법은 GATS/DDA와 달리 직접적으로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주고받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이를 회원국들이 준수하게 만드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규 제정³⁰⁾ 및 개정, 감독기구 설치 및 정비, 감독당국자 교육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보험과 관련한 국제규범은 IAIS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작업을 해온 결

30) 실제로 약 50개 아프리카 국가 중 10개 미만의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보험법을 보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UN(2007), p. 218.

과 현재 원칙(Principles)³¹⁾, 기준(Standard), 지도 자료(Guidance Paper)에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IAIS는 이들 자료를 보험감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훈련과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핵심원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은 IMF와 세계은행이 1999년 5월에 도입한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me)를 통해 모니터링되고 있다. 보험 분야의 경우 2000년에서 2007년에 걸쳐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국가의 ICP 준수 여부가 평가되어 보고서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CP에 맞추어 국내 규제를 개선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진출하기를 선호하는 국가들의 보험규제가 ICP에 맞추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IAIS는 감독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해 동기구가 작성한 원칙과 조치들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IAIS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핵심커리큘럼교재(Core Curriculum Material)를 개발하여 감독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핵심커리큘럼교재는 세계은행의 재정지원 하에 2003년부터 3개년에 걸친 프로젝트로 개발되었는데, 36개의 기본수준 모듈과 5개의 고급수준 사례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를 이용하는 것은 IAIS에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되므로 뒤에서 언급할 쌍무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OECD도 보험시장의 자유화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기구이므로 신흥 보험성장국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OECD에 가입하려는 국가에게는 관찰기간을 두고 OECD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시장개방 및 제도 선진화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유효성은 크다 할 수 있다. 또한 OECD는 IAIS와 보조를 맞추어 주요 분야에 대한 국제보험규범을 선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는 신흥 보험성장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개방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31) IAIS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은 효과적인 보험감독을 위한 조건, 감독체제, 피감독대상, 계속감독(ongoing supervision), 건전성 요건, 시장 및 소비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슈들을 커버하고 있다.

3.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 강화

우리 정부가 주요 투자대상국과 쌍무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쌍무협정이란 두 나라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약을 맺고 이를 서로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쌍무협정은 두 나라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맺어지게 된다. 최근 멕시코, 칠레 등과 맺은 FTA가 쌍무협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미국과 쌍무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거나 최근 FTA협상을 한 사례 등을 통해 볼 때 보험회사가 대상국에 진입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력은 당사국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며, 간접적으로 국제무역 및 서비스와 관련한 교역질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디킨슨(Gerry Dickinson, 1999)에 따르면 진입규제의 완화는 국영재보험에 대한 의무 할당의 폐지부터 시작하여 국경간(cross-border) 재보험회사업의 자유화, 합자투자 방식의 소수 지분 보유 허용, 다수 지분 보유 허용, 자회사 설립 허용, 지점 및 대리점 허용, 국경간 판매 허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현지 자회사의 인수 또는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가능한 종목부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하려 할 경우에 인수는 유용한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실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국가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규와 관행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때로는 해외 인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불확실성과 불형평성,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여러 국가에 걸쳐 소유권이 발생하게 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그룹의 CEO 입장에서는 그들 국가의 감독자들과 다양한 정책적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감독자의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때로는 감독자에게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진출 당사국의 감독질서 등에 따라야

하겠지만, 부당한 대우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하에 CEO가 감독자와 감독방식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간 중복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 국가에서 감독을 받은 사항이 있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감독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내용과 수준이 유사하거나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 분야에서 쌍무적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현지국의 보험규제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진출이 그 나라 보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직접투자, 선진기법 등의 영향이 현지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보험거래 이외의 분야에서 국가간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진출 시 다른 무역 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시장 개방을 약속한다든지 하는 방안이다. 어쨌든 FTA와 같이 큰 틀의 쌍무적 협력은 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국가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보험산업의 관점을 관철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보험 분야 자체에서 상호간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독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³²⁾하고 보험 관련 법규의 제정³³⁾ 또는 개선에 대한 지원, 건전성 및 회계 기준 등의 제정 지원, 선진감독 방법의 전수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과 같은 구체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요 진출 대상국의 감독당국과 인력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에

32) 2008년말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UAE, 카타르, 싱가포르, 헝가리, 베트남, 두바이 등의 국가와 업무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33)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생명보험업이 도입되지 않아서 2006~2007년에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를 통해 생명보험업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시킨 경험도 있다.

대해 이해도 높은 현지 감독자 육성에 노력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국내 감독자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보험부문 역할 강화

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재보험 수지차에서 수재보험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계에 다다른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포트폴리오믹스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영업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목표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즉, 보험회사가 해외진출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현지 시장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력, 성장성, 수익성 등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현지 시장에 대해 기초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표 V-2>와 같이 국가 기초 정보, 보험시장 및 보험규제 정보는 물론 투자조건, 고용규제, 세제 및 회계정보 등의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2>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시 필요한 기초 정보 (예시)

대분류	세부 항목
국가 기초 정보	- 역사 - 정치 : 정당 구성, 국민의 정치적 성향, 외국인에 대한 태도 등 - 인구 :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고령인구, 이민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 경제 : GDP, 산업구조, 소득분배, 저축률 등에 대한 현황 및 전망, 경제의 개방도 및 국제적 경제협력 정도 등
보험시장 정보	- 성장잠재력 : 보험침투도, 보험밀도 등 - 경쟁도 : 보험회사 수, 시장점유율 분포, 외국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 등
보험 규제 정보	- 진입 및 퇴출 관련 : 진입자유화의 정도, 경제적 수요 심사 제도 존재 여부, 퇴출 규제 - 영업 관련 : 상품 및 요율, 자산운용, 모집제도, 건전성 등에 대한 규제
투자 조건 정보	- 부동산 규제 : 부동산 소유 가능 여부, 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 등 - 투자이익 본국 송금 가능 여부
고용 규제 정보	- 내국인 의무고용 비율 규제 - 노동조합의 영향력
세제 및 회계 정보	- 조세제도 : 소득세, 법인세 등 - 회계제도

그런데 현지 시장에 대한 기초조사를 개별 보험회사별로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³⁴⁾내 보험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⁵⁾ 보험전담 부서가 설립되면 초기에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보가 집적되겠지만, 점차로 세계 각 지역의 유망국가에 대한 정보 집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4)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해외 금융법규, 제도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35) 보험회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으나 중복투자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인허가, 신고수리 등 업무처리절차 안내와 현지 금융제도 및 법규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전담 부서가 설립되면 이를 중심으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위한 심층적인 정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정부는 앞서 2절과 3절에서 언급했듯이 세계 각국의 보험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규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세계 각국의 보험시장의 기초정보는 물론 성장성, 수익성, 위험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제공하도록 하면 해외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 지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험산업 글로벌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요 보험 선진국의 글로벌화 추진사례와 각국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과 EU의 많은 글로벌 보험회사(그룹)는 높은 국제화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높은 국제화 수준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개별 보험회사(그룹)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적절히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해온 바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국과 EU 등의 선진국들이 보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주요국의 관련당국과 규제회담을 갖거나 주요 국제금융규제기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자국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조직들은 또한 보험산업을 대표해 글로벌화 관련 정책을 정부에 제언하고 무역협정 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사례 및 정책지원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진출 대상국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의 정도,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경험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당 대상국의 진입 및 퇴출 분야와 더불어 영업 활동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규제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인 OECD와 IA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OECD와 IAIS를 통한 신흥 보험성장국의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선진화 작업은 향후 한국 보험회사들의 신흥 보험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투자대상국과의 쌍무적 협력강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과 EU의 사례에서 보듯이 투자대상국과의 보험회담 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국의 보험시장 구조 및 규제와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해외정보 수집 비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중심지지원센터내 보험부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서진교 외, 『DDA 협상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 송영관, 「서비스협상 전망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 협상 전망 및 분야별 대응방안』, 2008
- 양성문 외,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연구조사자료 2008-1, 보험연구원, 2008
- 이석호,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진출 전망과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5
- 이순재, 「동북아 보험시장의 변화와 국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전략」,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제72집 pp. 33~76, 2005
- 엄창희,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보험개발원, 2000
- Amihud, Y., G. L. DeLong and A. Saunders(2003), "The Effects of Cross-Border Bank Mergers on Bank Risk and Value",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Vol. 21, pp. 857~877.
- Beenstock, M., G. Dickinson, and S. Khajuria,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Premiums and Income" An International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5: 259-272.
- Berger, A. N., R. S. Demsetz and P. E. Strahan(1999), "The Consolid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Causes,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23, pp. 135~194.
- Browne, M. J., J. Chung, and E. W. Frees, 2000, International Property-Liability Insurance Consumption,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67:73-90.
- Buch, C. M. and G. L. DeLong(2001), "Cross-Border Bank Mergers:

- What Lures the Rare Animal?", *Kiel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Working paper 1070.
- CEA, "Transatlantic Economic Partnership: European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on 'strengthening the EU/US economic partnership'", 2004.12.15.
- _____, European Insurance in Figures, CEA Statistics No. 36, 2008
- Chen, Yueyun and I. S. Hamwi, "Why has the United States had big insurance trade deficits?", *China-USA Business Review*, Vol. 6 No. 2, 2007
- Dickinson, Gerry, "Emerging Markets in Globalising Economy", UNCTAD, 1999
- Focarelli, D. and A. F. Pozzolo, "Where Do Banks Expand Abroad?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Vol. 78, No. 6, pp 2435~2463, 2005
- Focarelli, Dario and Alberto F. Pozzolo, "Cross-Border M&As in the Financial Sector: Is Banking Different from Insurance", Working Paper Series, 2007
- Galindo, A., A. Micco, and C. Serra, "Better the Devil that You Know: Evidence on Entry Costs Faced by Foreign Banks", IADB, Working paper 477, 2003
- Grace, Martin F. and Robert W. Klein, "The Effects of an Optional Federal Charter on Competition i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merican Council on Life Insurance, 2007
- Grosse, R. and L. G. Goldberg, "Foreign Bank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pp. 1092~1112, 1991
- Guillen, M. and A. Tschoegl, "At Las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etail Banking? The Case of the Spanish Banks on Latin America", Wharton Financial Institutions Center, Working

- paper, 1999, pp.99-41.
- Hymer, S. 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Ph. D. Dissertation, MIT, 1969.
- Knickerbocker, F., *Oligopolistic Reaction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MA, 1973.
- Li, Donghui and Fariborz Moshirian, "International investment in insurance services in the US", *Journal of Multi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Vol. 14, 2004
- Li, Donghui, Fariborz Moshirian and Ah-Boon Sim, "The Determinants of Intra-Industry Trade in Insurance Servic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Vol. 70 No. 2, 2003, pp. 269~287.
- OECD,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1997-2006", 2008
- Schoenmaker, Dirk, Sander Oosterloo and Otto Winkels, "The Emergence of Cross-Border Insurance Groups within Europe with Centralized Risk Management", Special Paper 176, LSE Financial Markets Group, 2007
- Sullivan, Daniel, "Measuring the Degree of Internationalization of a Firm",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5 Issue 2, 1994, pp. 325 ~342.
- Swiss Re, "Emerging markets: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face of globalization", *Sigma*, 4/2000.
- UNCTAD,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Insurance Services and Regulatory Frameworks". 2007
- UN(2007), Trade and development aspects of insurance services and regulatory framework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rsacki, T. and I. Vertinsky, "Choice of Entry Timing and Scale by Foreign Banks in Japan and Korea",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6, 1992, pp. 405~421.

William H. Greene, Econometric Analysis, 4th ed Prentice-Hall, NJ, 2000

Young, Owe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nancial Services Firms",
A Dissertation Paper, The Australian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and The
University of Sydney, 2007

<http://bea.gov/>

[부록 1] 외국인 직접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여기서는 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제5판(BPM5, Balance of Payments Manual: Fifth Edition)」(1993)과 OECD 「Detailed Benchmark Defin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rd Edition (BD3)」(1996)에 나와 있는 FDI의 정의를 제시한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BPM5를 채택해 FDI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BPM5는 FDI를 경영참여 등의 영속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행해진 투자로 정의한다. 이러한 투자를 수행하는 실체 또는 집단은 '직접 투자자', 직접 투자를 받는 법인 또는 비법인 기업은 '직접 투자기업'이 된다. BPM5는 직접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10%의 지분소유를 제시한다. 실질적으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은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 판단기준(예를 들어 10%)의 변동에 따라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직접투자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또는 투자자와 관련된 제3의 기업을 통해 제공된 자본이 FDI로 분류된다. FDI로 분류되는 직접투자자의 투자 형태에는 자기자본(equity capital), 이익의 재투자(reinvestment of earnings), 기업 내 (모회사와 계열사 간) 장단기 자금대여가 포함된다. 모든 국가들이 각 구성요소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않기 때문에 발표되는 FDI 자료를 통한 국가 간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특히 재투자된 이익(reinvested earnings)은 여러 국가에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FDI 파악에 있어 중앙은행의 환율 거래 기록에만 의존하는 데 기인한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FDI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국가로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있다.

OECD의 BD3도 단일 외국인 투자자가 (10%가 유효한 경영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한) 10% 이상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10% 미만의 보통주 또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효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 기업은 직접투자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효한 발언권은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전적인 통제력의 확보를 뜻하지는 않는다.

[부록 2] 보험 무역 통계

UNCTAD는 IMF 국제수지 매뉴얼(BPM5, 1993; Balance of Payments Manual)의 개념 및 정의에 따라 서비스 국제무역을 작성한다. 국제수지표(Balance of Payments Statement)의 작성에 있어서는 '거래(transaction)'와 '거주(residence)'의 개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거래는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의 창출(creation), 변형(transformation), 교환(exchange), 이전(transfer), 또는 소멸(extinction)을 반영하는 경제적 흐름(economic flow), 또는 상품 및 금융 자산의 소유권 변경, 서비스의 제공, 노동 또는 자본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제적 흐름을 의미한다. 거주 개념³⁶⁾은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 간 거래 확인이 BPM5 체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거주는 국적이나 법적 기준이 아닌 거래자(transactor)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center of economic interest)에 기반을 둔다. 거주 개념에는 경제적 영토(economic territory)가 적용되는데 즉, 한 조직의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느 한 국가의 경제적 영토 내에 있으면 해당 조직은 그 국가에 거주한다고 본다. 한 국가의 경제적 영토는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지리적 영토로 구성되는데,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당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뿐 아니라 대사관, 영사관, 군사기지, 과학기지, 정보국이나 이민국(immigration offices), 원조기관(aid agency) 등 해당 정부가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외교·군사·과학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 경제권 내에 위치한 지역도 포함된다.

한 기업이 한 국가의 경제적 영토 내 하나 이상의 장소(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에서 무기한 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경우, 이 기업은 해당 국가에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있다고 본다. 지침에서는 1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거주 기업 A가 경제적 영토 밖에서 해당 기업의 인력, 생산시설 및 장비를

36) 거주에 대한 정의는 BPM5와 1993 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가 동일하다.

이용해 생산 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위 단락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동 생산은 호스트 국가(host country)의 생산으로 간주되고 기업 A도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조직(지점 또는 자회사)으로 간주된다. 이외 기업 A는 현지 활동에 대해 분리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고 호스트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기업 A는 해외 계열사(foreign affiliate)로 간주되며,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생산은 기업 A의 수출로 분류된다. 국내 생산으로 분류되는 생산만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역외 기업(offshore enterprises)은 해당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원칙은 해당 기업이 면허(concessions), 기타 규정 등에 의한 특수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급업체와 소비자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역외에 계열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 매뉴얼에서 동 계열사들의 국내 판매는 "서비스 국제무역"으로 다루지만 해당 국가에서의 판매는 국제수지계정(balance of payments accounts)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 계정은 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간 거래만을 포함한다.

국제 보험 서비스(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는 총경과보험료(total premiums earned)에 포함된 서비스 요금(service charges)으로 측정된다. 국제 보험서비스 거래의 측정은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연기금(pension funding), 기타 원수(other direct)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으로 구분돼 측정된다.

[부록 3] 초국적 지수 (TNI, Transnationality Index)

본 보고서에서 TNI는 Schoenmaker, Oosterloo, and Winkels(2007)에 따라 (i) 총 자산에 대한 해외 자산의 비율, (ii) 총 수입(income)에 대한 해외 수입의 비율, (iii) 총 종업원에 대한 해외 종업원의 비율의 평균으로 구해진다. Schoenmaker, Oosterloo, and Winkels(2007)는 복합금융기업의 재무제표로부터 보험 부문의 자산(assets)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은행 등 보험부문 이외의 자산도 포함시켰으며 세 항목을 다 구하기 어려운 경우 입수가능한 항목으로만 지수를 산출했다. Schoenmaker, Oosterloo, and Winkels(2007)는 수입 자료로 연간 총수입보험료(total gross written premiums) 또는 순수입보험료(net written premiums)를 이용하였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분리된 해외 부문의 보험료 수입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수익(revenue)을 대신 사용하였다. 종업원(Employees) 자료는 연평균 또는 연말 종업원 수가 사용됐다.

Schoenmaker, Oosterloo, and Winkels(2007)는 영업 지역을 자국시장(h), 이외 유럽지역(e), 이외 해외지역(w)으로 구분했으며, 보험 기업은 다음의 정의에 따라 국내(domestic), 지역(regional), 글로벌 기업으로 구분됐다.

- 국내 기업: 국내 사업 비중이 50%를 넘는 경우
- 지역 기업: 50% 이상의 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25% 이상의 사업이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 글로벌 기업: 50% 이상의 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비중이 25% 미만인 경우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에 세부 지역별 정보가 제공되는 한 Schoenmaker, Oosterloo, and Winkels(2007)의 방법을 따라 해외 진출 지역을 유럽지역과 비유럽지역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혜은 2009.3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연구논문집

-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1호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2호 / D. Farny, 전찬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경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보험동향 (계간 ₩ 20,000)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 자 약 력

오 영 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현 한국보험학회 이사
현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E-mail : ysoh@kiri.or.kr)

서 대 교

Kansas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E-mail : dkseo@kiri.or.kr)

김 영 진

한국 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현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E-mail : yjkom@kiri.or.kr)

정책보고서 2009-0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발행일 2009년 4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02) 3775-9000

ISBN 978-89-5710-087-5

정가 10,000원